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이현창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논문분야 경제학

■ 주 제 어 경제학, 이재학, 정치경제학, 번역, 한자문화권

■ 요약 문

오늘날 Economics는 경제학, 그리고 Political economy는 정치경제학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는 Economics가 아니라 Political economy를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흥미롭게도 한자문화권과 인도에서 채택된 Political economy의 번역의 어원(語源)은 근대 경제학이 성립하기 이전 Political economy의 의미와 상통(相通)한다. 아랍권에서 채택된 번역어의 어원은 Economy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들 용어는 고대사상의 발전기에 출현하여 근대 학문의 성립기에 오늘날 개념으로 다시 탄생하였다.

원래 가정관리라는 그리스어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관리를 의미하도록 political이란 형용사를 부착하였는데, 고전학파의 단계에 Political economy는 사회과학으로서 확립되면서 경제질서와 부(富)의 성격·생산·분배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나아가 경제학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진전되는 과정을 완결하고자 했던 신고전학

* 이 글의 작성에 고려대학교 이한섭 교수 등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Disuddion Paper No.0807(December, 2008)(<http://ideas.repec.org/p/iek/wpaper/0807.html>)을 일부 줄여 수록하였다.

파는 정치와 무관하게 가정과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을 지향하면서 political을 떼어 버리고 가정관리론의 어원으로부터 유래하는 Economics를 학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전학파(古典學派)의 Political economy라는 개념과는 부분적으로만 상통하고 신고전학파의 Economics라는 개념과는 무관한 한자인 경제학은 1862년 일본에서 최초의 번역어로서 성립하였다. 그것은 고전학파·신고전학파의 경제학 개념에 더욱 잘 맞는 이재학(理財學)이라는 번역어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번역어가 출현하는 가운데 일본의 번역인 경제학이 Political economy라는 학문의 내용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랜 모색 끝에 결국 수용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근대 학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이 일본의 번역에 따랐다.

한자문화권에서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채택된 것은 그 출발점에서는 새로운 학문의 진화 과정에 영향을 받았고, 그 귀결점에서는 이 학문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Political economy를 번역의 대상으로 삼고 그 어원이 고려되고, 초기에 도입된 고전학파경제학의 도덕철학적 성격 등이 경제학이란 번역어의 승리를 도왔다.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번역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그 대안이 모색되었다. 일본인과 중국인 모두가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번역어로서 경제의 뜻이 지나치게 넓고 이재의 뜻은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했다. 결국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의 궁극적 승리를 낳은 결정적인 요인은, 구미에 비해 후진적인 동아시아의 세 나라 모두가 새로운 학문의 기본 효용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자가 경제학이라고 보았던 점이다.

20세기 후반에 주류 경제학은 역사·제도·정치·문화 등의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20세기 전반 이전 신고전학파의 좁은 연구 영역에 친화성을 가지는 '이재학'보다는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의 도입을 통해 도출된 '경제학'이라는 번역이 더욱 적절한지도 모른다.

1. 머리말

오늘날 Economics는 경제학, 그리고 Political economy는 정치경제학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Economics가 아니라 Political economy를 대상으로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고안되었다. Economics라는 용어가 대두한 후에 출현한 Political economy는 정치경제학으로 번역해야겠지만, 그전에 존재한 Political economy는 경제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펑티엔위(馮天瑜)는 “‘經濟’라는 용어가 한자의 고전적 뜻과 심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어형(語形)으로부터 오늘날의 뜻을 도출할 수도 없다”고 했다(馮天瑜, 2005, 159쪽). 세상을 다스리고 인민을 구제한다는 경제라는 한자의 원래 의미는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가 기본 고찰 대상으로 삼은 부(富)의 성격·생산·분배와는 부분적으로는 상통(相通)하는 데에 그쳤고, 신고전학파의 Economics가 기본 고찰 대상으로 삼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행위, 곧 합리적 선택과는 무관하였다.

한자에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이 보아도 경제의 한자 의미가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의 대상에 잘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번역어로서 채택되어 정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본에서 Political economy가 1862년 처음에 경제학으로 번역되었으나, 신고전학파의 Economics의 뜻에 더욱 잘 맞는 이재학(理財學)이라는 번역어가 부상하여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를 압도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채택된 데에서 드러나듯이, 단지 한자나 학문 지식의 부족에 의해 경제학이라는 번역이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경제학이 어떻게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번역어로서 성립하여 정착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확립된 경제학이라는 학문뿐만 아니라 한

자문화권에서 사용된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번역어가 양자 사이의 다리를 어떻게 놓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번역뿐만 아니라 개념의 역사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사실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번역 과정에서 이 학문의 개념 변천과 그 번역어의 모색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내용이 변천해 왔고, 그와 더불어 학문의 명칭이 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학문의 진화과정이 번역의 양상과 귀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다양한 정의 중에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적합한 번역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의 성격·생산·분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거나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행위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유럽에서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번역상 난관과 모색은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번역어의 선택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학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번역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 학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국가관이나 정치체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번역 과정은 유럽에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변천, 한자문화권에서 경제사상의 특징, 그리고 번역어의 성립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 및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번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개념과 번역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치·지성계 등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유럽에서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개념 변천에 관해 고찰한다. 3절에서는 이것과 유사하면서 아시아에 존재하던 개념을 한자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본·중국·한국에서의 그 번역 경위는 4~6절에서 다룬다. 7절의 결론에서는 경제학

이라는 번역어의 선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한다.

펄티엔위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번역 경위에 관해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일본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 그리고 경제학의 개념사와 번역의 선택을 낳은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고찰하지 못하였다(馮天瑜, 2005). 이 글에서는 동북아시아 3국 모두를 대상으로 경제학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면서 번역어의 성립·정착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해명하고자 한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개념을 정리한 연구들이 있는데(Arndt, 1984; Groenewegen, 1985·1987), 이 글에서는 그 전후 시기도 포함하여 학문 발달의 더욱 넓은 시야에서 경제학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래야 한자어 번역의 맥락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유럽문화권과 한자문화권 사이의 경제사상 내지 경제학 발달의 비교사적 시야에서 개념의 변천과 번역의 경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 변천

먼저 유럽에서 economy의 의미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실부터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4세기 중엽 이전에 크세노폰이 저술한 *Oikonomikos*는 훌륭한 생활방식과 재산을 올바르게 쓰는 방도에 대한 장황한 서술로부터 시작하고 농업경영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가장의 덕목 등을 다룬 윤리학적 성격의 저술이었다. 'Economics'의 어원인 이 그리스어는 가정(家庭)을 뜻하는 *Oikos*와 관리한다는 뜻을 가진 *nem-* 또는 법(法)이라는 뜻을 가진 *nomos*의 합성어였다.

*Oikonomia*는 가정관리라는 뜻의 명사이다. 가정관리를 위한 법도라는 규범적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Oikonomikos*는 그 형용사이며, 정관사

가 불거나 생략되어 가정관리론(家庭管理論) 내지 가정관리술(家庭管理術)로도 해석될 수 있다. 크세노폰의 *Oikonomikos*은 일상적 교훈을 대화체로 쓴 담론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작(僞作)으로 알려진 *Oeconomica*는 그보다 학문 체계를 지향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s*와는 달리 학문으로서 성립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기본적으로 담론 수준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저술의 명칭은 가정관리론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Ethica Nicomachea*』에 의하면, 가정관리론은 수사학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학의 하부체계였다.

리들(Henry Geroge Liddle)과 스코트(Robert Scott)가 1968년에 증보하여 간행한 『그리스어-영어 사전 *A Greek-English Lexicon*』(Oxford: Clarendon Press)에 의하면, 군주제가 정착하는 헬레니즘 중기인 기원전 3세기에는 *Oikonomia*가 폴리스의 관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기원전 2세기에는 이러한 의미로서 *Political economy*의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Oikonomia politika*도 이미 나왔다.¹⁾

*Oikonomia*는 라틴어로 *Oeconomia*이고, *Oikonomikos*는 *Oeconomicus*이다. *Oikonomikos*나 *Oeconomicus*는 남성 형용사이고, 후자의 여성 또는 중성복수(中性複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작명(僞作名)인 *Oeconomica*이다. 라틴어인 *Oeconomia*도 마찬가지로 가정관리를 의미하였고, 나아가 화술(話術)과 작문법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이 광의의 라틴어를 프랑스어 *Oeconomie* 또는 *économie*가 인계하였고, 여기서 영어 *Economy*가 나왔다.

17세기 프랑스에서 국가 건설의 시대적 요구는 공공행정이라는 의미의

1) 가정관리라는 어원인 *Oikonomia*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조직이나 경영을 가리키게 되고, 公共歲入의 관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핀리, 1993, pp.13~20).

*Oeconomie politique*라는 용어를 대두시켰다(Groenewegen, 1987). 고대 그리스의 *Oikonomia politika*가 폴리스의 관리라면, 근세 프랑스의 *économie politique*는 국가관리를 의미하였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Oeconomie politique*’를 사용한 것은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한 메이예른느 튀르케(Louis de Mayerne-Turquet)의 1611년 저서로 알려져 있다(King, 1948). 1615년에는 프랑스의 제조업자 몽크레티앵(A. de Montchrétien)이 저서명에 ‘국가의 질서 있는 통치’라는 의미의 ‘*l’Oeconomie politique*’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의 원천, 상업활동, 식민지문제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重田園江, 2003). 그런데 중상주의학파(重農主義學派)가 성립하기 이전 프랑스의 *Political economy*는 오늘날 정치·행정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Armdt, 1984). 1751년부터 디드로(Diderot) 등이 간행하기 시작한 『백과전서(百科全書)』 제1권의 첫머리에는 「인간 지식의 체계적 圖示」가 있다. 여기서 이성의 영역인 철학 중에 인간과학이 있고, 그중에 포함된 도덕과학의 한 분야인 법학 가운데 경제학이 자연과학 및 정치학과 병치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보다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의 대두가 늦었지만, 근대 경제학으로의 진화가 프랑스보다 늦은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근대 경제학이란 중농주의학파·고전학파 이래 사회과학으로서 성립한 경제학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헤일즈(John Hales)는 1581년의 저서에서 경제학이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의 한 분야라는 전통을 수립하였다(Spiegel, 1991, pp.83~85). 이후 경제학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철학으로부터 분화되면서 전문 과학으로 확립되어 왔다. 영국의 도덕철학이나 프랑스의 도덕과학에서 사회과학이 빠지면, 오늘날의 윤리학이 된다. 페티(William Petty, 1623~1687)는 사회현상에 대한 수량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그가 사용한 개념인 *Political Arithmetic*은 정치학과 경제학을 종합한 내용이였다(Spiegel, 1991, pp.120~125; Roncaglia, 2006, pp.55~58). 이후 경제학과 정

치학이 점차 분화되었다. 영국의 마지막 중상주의자(Spiegel, 1991, p.202)인 스튜어트(James Stuart)가 1767년에 출간한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Economy를 가정을 대상으로, Political economy를 국가를 대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방도로 정의하였다.²⁾ 여기서 욕구는 물질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Political economy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의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Political economy라는 제명을 넣은 이 방대한 책(Spiegel, 1991, p.215)은 인구와 농업, 무역과 공업, 화폐, 신용 및 과세를 대목차로 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생활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중상주의학파는 Political economy의 내용 속에 경제의 비중을 늘렸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도덕철학을 신학, 윤리학, 법학, 그리고 ‘expediency’로 나누었는데, ‘expediency’는 정치학과 경제학으로 구성되었다(Spiegel, 1991, p.224). 그에게서 정치학과 유기적 관련을 가지는 경제학이 Political economy였다.

사회과학으로서 Political economy가 확립되면서 그 개념은 변용을 겪었다. 케네(François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1758년)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1776년)이 근대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초석을 놓았다. 케네에게서 économie란 국가통치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순환을 표현하는 의미로 바뀌었다(重田園江, 2003). 스미스는 『국부론』 4편 「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학설체계」의 첫머리에다 다음과 같이 스튜어트보다 구체적인 학문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경제학은 정치가나 입법자를 위한 과학의 한 분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2) “Oeconomy, in general, is the art of providing for all wants of a family, with prudence and frugality. ... What Oeconomy is in a family, Political economy is in a state: ...” (Steuart, 1767, Book I, Introduction)

있다. 첫째, 인민에게 풍부한 수입이나 생활 자료를 제공하는 것,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이 스스로 충분한 수입이나 생활 자료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학은 인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스미스가 Political economy를 ‘정치가나 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은 국가정책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중상주의학파의 유산을 반영한다. 그렇다 해도 스미스의 Political economy는 중상주의경제학과 달리 경제정책론이 아니라 정책과 입법에 필요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국부(國富)의 성격과 그 변동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Political economy가 국가관리론으로부터 경제체제와 국부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점차 전환하는 과정을 완결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확정하였다고 하겠다. 스튜어트와 스미스의 정의는 프랑스 학계에 수용되었다(Groenewegen, 1985). 학문의 내용이 정립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법인데, 중농주의학과 · 고전학파는 Political economy를 부의 성격 · 생산 · 분배를 기본 고찰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Groenewegen, 1985).

프랑스에서는 영국보다는 약간 늦게 Political economy의 개념 변환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 이 용어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에는 ‘정치체제의 총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의미하였다. 그러다 18세기에 통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인 자연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Political economy의 대상은 정치체제의 통치로부터 그 질서로 전환하였다. 이 질서의 자동적인 실현을 예상할 수 없었을 때에는 Political economy는 여전히 질서유지를 위한 통치의 학문이었으나, 자동조절기능을 가진 경제를 인식한 세이(J. B. Say)나 시스몽디(J.

C. Sismondi)의 19세기 초의 저술은 Political economy를 ‘부의 재생산의 국민적 질서’를 다루는 학문으로 인식하였다(木崎喜代治, 1978, 14쪽).

이러한 근대 경제학의 성립과 Political economy라는 개념의 변환은 국가관의 변화, 그리고 국가로부터 사회의 분화와 관련되어 있다. 스미스의 정의에서 인민의 복지 증진이 재정 수입의 증대보다 우선적인 과제로 거론된 점이 주목된다. 중상주의자에게서 Political economy는 국가정책론을 위주로 하였지만,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먼저 경제질서를 탐구하고 이어서 국부의 증진 요인을 고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의 수입을 거론하였다. 이렇게 국가 정책이 위주인 경제학이 인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를 탐구하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문으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국가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홉스(Thomas Hobbes)는 지배자나 집합적 실체와는 독립적인 국가관, 그리고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사로서의 사회계약적 국가관을 처음으로 명료하게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는데(박상섭, 2008, 137~139쪽), 스미스는 새롭게 대두한 사회계약적 국가관에 잘 어울리는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처음 제시하였던 것이다.³⁾

스미스에게서 국가(state or commonwealth)란 홉스의 계약국가를 의미하고, Political economy는 인민과 국가를 포괄하는 국민(nations)의 부를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중상주의자에게는 Political economy의 주된 고찰 대상은 국가(state)의 재정이었지만, 스미스에게는 국민의 경제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의 세이는 경제학이 정치학과 달리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부의 생산·분배·소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정치조직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경제를 다룬다

3) 스미스는 『국부론』 제1편에서 ‘富는 힘이더라는 홉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고 했다(木崎喜代治, 1978, 12~13쪽). 서유럽에서는 17~18세기에 시민의 사회적 삶이 국가나 정치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는데(박주원, 2001, 195~199쪽), 고전학과경제학은 국가나 정치로부터 분리된 경제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렌트(1996/2006, 94~98쪽)는 사회가 탄생한 이후 가정경영이 공론 영역에서 거론되었고, 경제학의 탄생이 사회의 발생과 일치하였다고 본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자동조절적 경제관은 개인으로 구성되면서 국가로부터 자립하는 사회관을 전제하며 또한 그것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는 국가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을 신 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을 과학이라 하였으나, 고전학과경제학의 과학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서, 1830년대부터 과학적 경제학과 그렇지 않은 경제학의 구분이 갈수록 성행하였다(Groenewegen, 1985). 과학성의 문제는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Political economy의 도덕철학적이고 정치학적 요소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극 적용하자는 요구이기도 했다. 과학적 경제학을 수립하자는 동기가 신고전학파의 성립을 낳은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 선구자인 제본스(W. Stanley Jevons)는 *The Thoery of Political economy* (London: Macmillan) 제2판(1879)의 서문에서 경제학이 과학이기 위해서는 수학적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리된 과학을 지향하면서, Political economy의 용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다. *The Thoery of Political economy* 제2판의 서문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은 거의 1세기 전에 ‘la science économique’라 했으며, ‘Plutology, Chrematistics, Catallactics’ 등 완전히 새로운 이름도 등장하였다. Plutology는 부(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다. 프랑스의 쿠르셀 세뉴에이(Courcelle-Seneuil)는 1858년 저서에서

경제적 동기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탐구하는 과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헨(William Edward Hearn)은 Plutology가 인간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이론이라는 제명의 저서를 1864년에 출간하였다(Flux, 1987). Chrematistics도 그리스어로서 한자로 번역한다면 이재(理財)가 적합하며(方維規, 2008, 199쪽), 글래드스톤(Gladstone) 등 소수 인물이 이 용어를 Political economy보다 선호하였다(Finley, 1987). Catallactics는 교환의 학문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리스어로서, 웨이틀리(Richard Whately)가 1831년의 강의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 용어를 옹호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적지 않았는데, 매클라우드(H. D. Macleod)는 1863년에 이것을 유일하게 바른 용어로 보았고,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1949년의 저서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Rothbard, 1987). 그런데 최종적인 귀결은 불만의 주된 원천인 ‘political’을 삭제하되 ‘economy’를 살리는 것이었다.

1870년대에 본격화된 한계혁명(限界革命)으로 성립한 신고전학파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등과 같은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화(最適化)를 기본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중농주의학과 고전학파가 사용한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는 신고전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주류경제학으로 부상한 19세기 후반부터 ‘Economics’로 대체되어 갔다. Economy는 그리스어 Oikonomia와 라틴어 Oeconomia로부터 유래하였다면, Economics는 그리스어 Oikonomikos와 라틴어 Oeconomicus로부터 유래하였다.

매클라우드는 1875년의 논문에서 ‘Economics’라는 학문 명칭의 사용을 처음 주장하였다. 당시 Political economy는 부의 학문, 부의 생산·소비·분배를 다루는 학문, 또는 교환의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었는데, 그는 “交換量間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을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합당한 학문 명칭을 찾았다. 매클라우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작을 영어로

“Economics”로 번역하고, oikia가 가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으로 재산 일반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는 Political economy보다 Economics를 선호한 이유로서 경제학이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고 재산을 다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환의 학문이라는 Catallactics의 명칭을 수용한 적이 있었지만, 입장을 바꾸어 Economics라는 유력한 용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Macleod, 1975).

마셜(Marshall) 부부는 1879년에 출간한 *The Economics of Industry*에서 “political interests”가 단지 국가의 일부 이해관계를 의미하므로, Political economy 대신에 economic science, 또는 더욱 간단히 Economics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정치의 파당적 이해관계와는 달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평하게 생산자의 업무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political’이라는 용어를 뺀 명칭을 사용하자고 했다. 마셜이 매클라우드의 용어에 끌린 다른 이유는 경제학이 교환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정의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Groenewegen, 1985). 신고전학파는 생산이나 분배보다는 교환 과정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제본스는 매클라우드와 마셜 부부의 ‘Economics’ 사용을 보고 *The Thoery of Political economy*의 제2판(1879) 서문에서 다음의 이유로 그 제안을 옹호하였다. Political economy는 두 단어라는 단점을 가지는 반면, Economics의 어미(語尾) 형태는 수학 등의 학문과 동일하다. 게다가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부터 권위를 가진 용어이다. 마셜과 제본스와 같은 지도적인 경제학자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Economics라는 용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었다. 판탈레오니(Maffeo Pantaleoni)가 1889년 이탈리아에서 출간한 *Manuale di Economia Pura*에서는 Economia Politica가 아니라 Economia Pura가 제명(題名)에 들어갔고, *Pure Economics*(London: Macmillan, 1898)라

는 제명으로 영역되었다. 미국 학계에서도 1892~1893년에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가 Economics로 대체되었다(Mason and Lamont, 1982, p.396). 그런데 마셜이 1920년 출간한 *Principles of Economics*의 8판에서까지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를 동의어로 간주한 데에서 드러나듯이, 당시까지도 용어의 전환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Political economy는 본문의 처음에 Economics의 동의어로서 한 번 언급되는 데에 그쳤다.

마셜은 *Principles of Economics* 본문의 첫 문장에서 경제학이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에서 물질적 복지의 달성에 관련된 일상적인 인간사를 연구한다고 정의하였다.⁴⁾ Political economy의 어원에서부터 중시된 국가가 마셜의 정의에서는 거론될 필요조차 없어졌다. 경제학이 일상적인 인간사를 다룬다는 마셜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경제학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로빈스(Robbins, 1932, chap.1)는 희소성(稀少性)의 관점에서 “경제학이 목적과 대체용도(代用度)를 가진 희소한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Economics is the science which studies human behaviour as a relationship between ends and scarce means which have alternative uses)”이라는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마셜 등에 의한 물질주의적 정의가 서비스의 포함 여부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재(經濟財)에 대한 성격을 오도(誤導)한다고 비판하였다. 경제재의 본질은 물질성이 아니라 희소성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상용어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경제적으로 간주하지만, 로빈스는 과학적 연구방법에 적합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고립된 개인이나 폐쇄적 공동체도 희소한 수단으로 야기되는 경제문제를 가진다는 점에서 교환경제의 정의가 포괄 범위가 불충분하다

4) “Political economy or Economics is a study of mankind in the ordinary business of life; it examines that part of individual and social action which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attainment and with the use of the material requisites of wellbeing.”(Marshall, 1920, p.1)

고 비판하였다. 경제학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행위를 다룬다는 로빈스의 정의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신고전학파는 한계 개념을 도입한 혁명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데, 한계 개념은 희소성 때문에 필요한 분석 도구였다. 신고전학파는 희소성을 경제학의 핵심 문제로 삼았는데, 로빈스는 그 점을 처음으로 경제학의 정의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로빈스가 정립한 희소성이란 관점의 정의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신고전학파는 이처럼 경제학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진전되는 과정을 완결하고자 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한편에서는 고전학파경제학의 태반인 도덕철학의 윤리학적 성격을 제거한 순수 과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가 지향한 과학성을 진전시키고자 수학의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물리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한층 엄밀한 분석논리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보유한 정책론의 요소를 제거한 전문 과학을 확립하고자 했다. 고전학파 이전에는 정책 담론의 관점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도덕철학이 요청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경제정책의 담론을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정립하려는 운동은 중상주의학파→중농주의학파→고전학파→신고전학파를 거치면서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⁵⁾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학풍의 학문을 매클라우드(Macleod, 1875)는 Economics라는 새로운 용어로 명명하였고, 그것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래 가정관리라는 그리스어·라틴어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관리를 의미하도록 political이란 형용사를 부착하였는데, 정치와

5) 슈페터 등은 Political economy가 도덕철학의 규범적 원칙을 옹호하였다면, Economics는 가치중립적이라고 보았다(Armdt, 1984, p.268).

무관하게 가정과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 주체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을 지향하면서 political을 떼어 버리고 가정관리론의 어원으로부터 유래하는 Economics를 학문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Oikonomikos* 단계에서는 사적인 가정경제를 다루다가 political이란 형용사를 부착하면서 국가관리라는 공적인 영역을 다루게 되었는데, 고전학과 성립을 전후한 시점부터 사회의 탄생으로 공론 영역으로 거론된 사적 민간경제를 분석의 중심에 놓게 되자 political이란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문과학을 지향하는 운동은 신고전학과경제학을 성립시킴과 아울러 Political economy로부터 Economics로의 학문 명칭의 전환, 그리고 학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낳았던 것이다.

이처럼 중농주의학과 ·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Economics라는 개념이 출현하는 것은 경제학이 정치학 · 윤리학과 연계성을 점차 단절해 가면서 전문화되어 가는 동시에 사회과학으로서 확립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Politics라는 용어와는 분리되어 경제학을 나타내는 Economics와 그 탐구 대상인 Economy가 별도의 용어로 분화되고 전자의 대상으로서 후자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Political economy가 경제학을 의미할 때에 Economy는 원래 그리스 · 라틴어 어원의 가정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Economics가 경제학을 뜻하게 되면서 Economy는 그 학문의 대상으로서 부의 성격 · 생산 · 분배 내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행위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Economy의 첫 번째 뜻풀이로 가정관리를 제시하나, 오늘날 일상용어로서 Economy는 가정관리라는 뜻을 상실하였다. 오늘날에는 domestic economy 또는 household economy라 해야 가정경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도 Economy는 가정경제의 중요한 원칙이라 할 만한 ‘검약(儉約)’이라는 뜻을 그 어원의 흔적으로 남기게 되었다(Sidgwick, 1987). 요

컨대 경제라는 개념의 실체가 인지된 다음에 그것을 다루는 경제학이 성립하였기보다는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성립한 다음에 그 대상으로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고 변형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Karl Marx)는 Political economy를 시민사회의 해부학으로 인식하여,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용어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의 소외관계와 분배과정에서의 착취관계라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정치와 독립된 순수 경제학을 선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⁶⁾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의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으로서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시장경제와 정치의 혼합영역을 다루는 분야를 Political economy로 불렀다. 경제학이 다시 공적 영역에 관심을 높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으로 번역되어야겠지만, 중농주의학과 · 고전학파가 사용한 Political economy는 정치경제학보다는 경제학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의 Political economy는 고전학파의 개념을 계승한 점에서 경제학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며, 신고전학파와는 달리 정치적 과정을 고찰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으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아시아에서의 Political economy와 유사한 개념들 —한자를 중심으로

Economy의 어원으로서 크세노폰의 *Oikonomikos*, 그리고 아리스토텔레

6) "...economics studies the social (inter-personal) relation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weezy, 1942, p.3) 본문에서와 달리 스위지 저서의 부제는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스의 위작으로 알려진 *Oeconomica*는 가정관리라는 뜻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제가(齊家)이다. 그리고 Political economy의 원래 의미인 국가관리에 상통하는 한자어는 치국(治國) 내지 경제이다. 경제는 경제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인민을 구제하기 위한 올바른 정치, 도덕적 교화, 민생 안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유학의 정치 이상을 담았다. 『장자(莊子)』에 ‘경세’가 나오고 『서경(書經)』에 ‘이제조민(以濟兆民)’이라는 구절이 있고, 4세기 전반의 저서에 ‘경세제속(經世濟俗)’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경제제민의 준말인 ‘경제’는 서진(西晉) 시대(265~317)에 처음 발견된다(馮天瑜, 2005). 최선의 정치질서를 탐구하는 학문 체계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s의 내용에 부합하는 한자어를 찾아도 경제 내지 치국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Politics의 번역어로 치국에 가까운 정치가 선택되었고,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는 경제가 선택되었다.

크세노폰의 Oikonomikos는 주로 가정관리를 다루면서 국가관리를 그것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 그 설명을 첨가하였다. *Oeconomica*도 같은 대상을 다루었는데, 먼저 출현한 가정관리술(Housecraft)이 국가관리술(Statecraft)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s의 제1권은 가정관리술을 다루었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제가가 치국 내지 경제의 전제였다. 그런 점에서 두 개념은 상통하였다. Oikonomikos가 윤리적 성격을 가진 점에서도 한자어 경제의 의미와 통한다.

그런데 두 개념의 차이점도 가볍지 않았다. 한자어 경제는 안민(安民), 곧 인민의 기초적 소비생활의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포함하였으나, Oikonomikos와는 달리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삼지는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Ethica Nicomachea*에서 가정경제론의 목적을 부로 보았는데, 부의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삼는 가정관리론이라는 의미의 한자어는 성립하지 않았다. 한자어의 경제는 도덕을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원리로

삼고 공리(功利)에 대한 경계 관념을 내포하였던 반면, Oikonomikos는 윤리적 성격을 가졌으나 오히려 공리를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원리로 삼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Ethica Nicomachea*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윤리의 한 덕목으로 거론되고 “자유인다움은 재산에 따라 말해진다”고 하였는데(아리스토텔레스, 2006, 124쪽),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발상이 담론으로 성립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Oikonomikos가 경제라는 한자어보다 오늘날 의미의 경제 개념에 더욱 가까웠다.

경제가 Politics의 번역어로는 채택되지 않고,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경제제민이 치국과 같은 의미이지만, 인민을 구제한다는 ‘제민’이라는 용어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물질적 욕구의 충족에 중요한 의의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달리 오늘의 경제 개념으로 접근할 소질을 내장하고 있었다. 특히 세계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세라 할 만한 16세기 이후에는 시장이 성장하여 일본에서는 경제사회가 성립하였다는 주장도 있다(速水融, 1973). 그러한 가운데 경제제민 담론 중에 오늘날 의미의 경제행위의 의의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송대(宋代) 이후 경제라는 개념에서 물질생활에 관한 내용이 비중을 점차 늘렸다(馮天瑜, 2005). 일본에서는 1660년대에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경제론이 성립하였다(杉原四郎·逆井孝仁·藤原昭夫·藤井隆至, 1990, 33쪽). 이후 경제론의 발전 가운데 “經濟라는 용어가 概念的·理念的인 정책의 뜻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정책이란 뜻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단서”가 나타났다(竹浪聰, 1983, 3쪽). 일본에서는 다자이 다이(太宰春台)와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에 의해 경제가 제명에 들어가는 저서가 편찬되었는데, 다자이의 저서는 ‘爲政者の經濟論’으로(杉原四郎·逆井孝仁·藤原昭夫·藤井隆至, 1990), 사토의 저서는 ‘국가관리 경제사상’으로 평가된다(テッサ, 1991). 한국에서도 16세기 후반 이이(李珣)와 유성룡(柳成龍)에 이르

러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경제론이 성립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경제사상의 발전은 실학으로 불려졌다. 유형원(柳馨遠)이 17세기 중엽에 저술한 『반계수록(澣溪隨錄)』은 ‘경제대문자(經濟大文字)’로 평가되었는데, 오늘날 의미의 경제를 중심 내용으로 삼았다(李憲稔, 1999). 그리고 『효종실록(孝宗實錄)』 9년(1658) 9월 기해(己亥)의 기사는 김육(金堉)의 사망을 전하고 “평생 經濟를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고 평가하였다. 김육의 주요 업적은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이라는 조세제도의 개혁이고 그가 대동법만큼 동전의 통용책에 힘썼던 점에서, 여기서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오늘날 경제정책이었다(이현창, 2007). 나아가 18세기 조선에는 ‘의리지학(義理之學)’과는 별도로 功利에 주로 관련된 ‘경제지학(經濟之學)’이라는 학문 범주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유봉학, 1995, 100~106쪽). 『대학』에 나타난 바처럼, 원래 치국=경제에서 도덕이 근본이고 물질생활은 부차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처럼 한·중·일 3국 모두의 경세제민론에서 물질적 욕구 충족활동의 비중과 의미가 커지는 추세는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서 경제가 선정되도록 도왔다고 생각된다.

국가경영에서는 정치문제가, 가정경영에는 경제문제가 중대한 항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국가경영에 대한 훌륭한 저술이 출현하였으나, 가정경영론의 출현은 훨씬 늦었다. 한자문화권에서 가정경제론은 가훈(家訓)과 농서(農書)라는 두 계열의 저술에서 성립하였다. 중국 가훈 중 다수는 절검(節儉)을 치가(治家)의 핵심 원칙으로 잡고 있다. 안지추(顏之推)가 589년경 저술한, 중국의 대표적인 가훈은 20편에 달해 크세노폰의 *Oikonomikos*보다 분량이 많고 체계적이나, 가정경제를 소략하게 서술하는 데에 그쳤다. 가훈은 후손의 특징인에 국한되지 않고 후손 일반에 해당하는 논의로 진전되었으나, *Oikonomikos*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상성이 높은 담론은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고대 로마의 농학자와 유사한 농가(農家)가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다(胡壽窓 1962, 482쪽). 농서는 대체로 농업기술을 위주로 하지만, 가정경제활동과 국가의 농업관리도 담고 있다. 농서에서 가정경제론은 특정 집안에 국한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성을 가졌으나, 대개 내용이 소략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농서를 살펴보자. 532~544년간에 편찬된 『제민요술(齊民要術)』은 「잡설(雜說)」에서 벼슬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야 궁핍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가정경제론적 관점의 설명이 소략하다. 1313년 완성된 『왕정농서(王禎農書)』도 농업기술을 위주로 하였다. 1633년 사망한 서광계(徐光啓)의 유작인 『농정전서(農政全書)』에서는 경제적 설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그것은 국가의 농업관리라는 관점에 입각하였다.

가정경제를 중시하여 다룬 농서류도 있었으니, 한나라 말기 편찬된 『사민월령(四民月令)』은 그 초기 예였다. 명나라 때에 서명에 ‘경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농서로서 『전원경제(田園經濟)』(張師說 輯)과 『산림경제적(山林經濟籍)』(顧應祥 撰)이 출현하여 주목된다. 후자를 검토하면, 가정경제의 내용은 소략하다. 가훈과 농서의 내용을 결합하여 가정의 물질생활을 풍부하게 다룬 저서도 나왔는데, 그 대표적 저술로 1758년 호위(胡燠)가 편찬한 『호씨치가략(胡氏治家略)』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이유태(李惟泰)가 1677년에 작성한 『정훈(庭訓)』은 안지추의 가훈보다 분량이 훨씬 적지만 훨씬 체계적인 가정경제론을 담았다. 나아가 ‘경제’를 서명에 넣으면서 가정의 물질적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삼는 농서들이 출간되었으니, 홍만선(洪萬選)이 1715년 편찬한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서유구(徐有榘)가 1830년에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들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임원경제지』가 농업기술론과 가정경제론을 종합한 저술로서 가장 체계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Oikonomikos*만큼 체계적인 가정경제론이었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시대에 농서와 가훈이 다수 출현하였고 게다가 19세기 전반에 ‘민부(民富) 형성의 경제사상’이 성립하였으나(杉原四郎·逆井孝仁·藤原昭夫·藤井隆至, 1990, 1편 4장), *Oikonomikos* 정도로 체계적이고 풍부한 내용의 가정경제론이 출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자문화권에서는 가훈과 농서의 발전 위에서 가정경제론이 형성되었으나, 고대 그리스는 농서가 없이 가정경제론을 수립한 특징을 가진다. 한자문화권에서 체계적인 가정경제론의 성립이 훨씬 늦었던 것은 학문 발전의 격차뿐만 아니라 학문 전개의 유형차도 반영하고 있다.

탕칭쥙(唐慶增, 1975, 19쪽)은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에 나오는 ‘식화(食貨) 이정(二政)이 오늘날 경제지식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서(漢書)』 이래 식화지(食貨志)는 경제 항목을 다루었다. 여기서 ‘식’이란 식량이며, ‘화’란 기타 재화와 화폐를 가리킨다. 결국 ‘식화’란 재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식화’ 이정은 재화의 생산·재분배·소비에 관한 국가관리를 의미한다. 스튜어트(James Steuart)는 Political economy를 국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도로 정의하였는데, 이 개념에 가장 접근한 한자어는 ‘식화’ 이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어의 후보에 오른 적은 없는 것 같다. ‘식화’ 이정은 하나의 단어로 되기 어렵고 그 의미가 경제학의 정의로는 지나치게 좁고, 아담 스미스 이후의 정의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담 스미스 이후의 정의에 맞는 한자어를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 경제학이 전문과학으로서 발전해 가면서 그 정의가 변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중상주의경제학의 체계조차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전학과 이후의 경제학 개념이 나오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1862~1865년간 해외로 유학하여 경제학 등 근대 학문을 배운 니시 아마네(西周)는 경제학을 ‘부국안민(富國安民)의 학

술’로 인식하였다(大久保利謙編, 1981, 137쪽). 스미스의 경제학의 목표를 잘 표현하는 한자는 부국안민 또는 안민부국으로 생각된다. 유학(儒學)의 경제 목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안민부국으로 집약된다. 안민과 부국의 목표는 이미 『논어』에서 제시되어 있다. 1870년 제정된 일본의 대학 규칙에는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이란 수업 과목이 있었는데, 이용후생도 스미스 경제학의 목표를 잘 표현하는 한자이다. ‘이용후생’은 『서경』의 대우모(大禹謨)에 나온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교통 개선과 상업 육성 등 적극적 경제정책을 주창한 실학자들이 이 구호를 내세운 바 있다.⁷⁾ 스미스도 포함한 중농주의학과·고전학과는 부의 성격·생산·분배를 Political economy의 탐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개념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한자는 ‘이용후생’으로 보인다. 부국이라는 한자도 그것에 접근하는데, 한자의 ‘國’은 국가(state)의 개념인데 스미스의 학문은 국민(nations)의 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안민부국이 부국보다는 고전학파경제학의 내용에 더욱 접근하는 한자로 보인다.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중국에서는 부국학(富國學)과 부국양민책(富國養民策)이라는 번역어가 나왔다. 그런데 이생후생학, 부국학, 부국양민책은 번역어로서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용후생과 부국양민은 두 용어를 병렬한 점에서 번역어로서 채택되기에 단점을 가졌다. 그리고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증진한다는 개념은 너무 협소하여 고전학과 이후의 경제학에 잘 맞지 않게 되었다.

물질적 욕구의 충족행위라는 의미에 가까운 한자는 ‘생계(生計)’이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량치차오(梁啟超) 등이 ‘생계’를 번역어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마셜은 경제학이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에서 물질적

7) 박지원은 1778년에 집필한 박제가의 『北學議』 서문에서 “대개 利用과 厚生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위로 正德을 해롭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경제가 유교 도덕의 전제라는 의미이다.

복지의 달성에 관련된 일상적인 인간사를 연구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에 그나마 접근하는 한자는 생계로 보인다. 그런데 생계란 용어는 학문적 함의를 가지기에는 지나치게 평이하다. 그리고 물질적 복지의 증진을 탐구한다는 마셜 정의의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이 번역어가 확산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신고전학파가 Economics의 탐구 대상으로 삼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한자는 재화의 효율적 관리라는 의미인 이재(理財)이다. 그런데 이재도 신고전학파가 사용한 Economics의 개념에 상응하는 엄밀하고 분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재'는 『주역(周易)』에 이미 나온다.

경제라는 한자는 아담 스미스 이전의 정의와는 다소 통하는 바가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정의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재와 이용후생이 번역어로서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보다 중농주의학과 고전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 개념과 더 멀리 떨어진 의미의 경제라는 번역어가 결국 선택된 것은 흥미롭다.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한·중·일의 엘리트는 신학문을 통해 국가의 부강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이상을 '경제'보다 더 잘 표현하는 한자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제라는 한자어는 유교 정치의 지향 목표를 폭넓게 보여 주는데, 그 경제 목표는 안민부국이나 이용후생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경제학이 번역어로 채택된 데에는 중국·한국·일본 모두에서 국가관리를 의미하는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18세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점(馮天瑜, 2005, 166쪽; 유봉학, 1995, 100~101쪽)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 해당하는 분야는 의리학(義理學), 경제학 및 사장학(詞章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사장학은 오늘날 문학에 해당하고, 의리학은 윤

리학과 철학을 합한 것이다. 공리(功利)에 관련되는 경제학은 정치학을 중심 영역으로 하나 오늘날 경제학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의리학과 경제학을 합하면, 영국의 도덕철학에 상응하는 내용이며, 경제학에 가장 적합한 영어를 찾는다면 아담 스미스의 'expediency'일 것이다. 유교리는 일종의 도덕철학에 포괄된 경제 영역이 Politics와 Political economy를 종합하는 내용인 점에서, 한자문화권의 학문체계는 영국과 상통한다. 서양으로부터 동시에 들어온 Politics와 Political economy라는 학문의 번역어를 찾을 때, 경제학이 아닌 한자어가 먼저 전자의 번역어로 정해졌기 때문에, 후자가 경제학으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크세노폰의 *Oikonomikos*에 상응하는 경제 관리의 담론은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s에 상응하는 학문이 성립하지는 못하였다. 중농학과 고전학파가 사용한 Political economy나 신고전학파가 그 대신에 사용한 Economics에 꼭 맞는 한자어가 동아시아에서 없었던 것은 중농주의학과 정도의 체계를 갖춘 경제학이 동아시아에서 성립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이런 사정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conomics의 Sanskrit 번역어는 Maurya 시대(기원전 321~185)와 그 후의 국가관리론을 집대성한 *Arthashastra*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Maurya 제국의 초대 수상인 Kautiliya의 저술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텍스트는 3세기경의 저술이다. 이 저서는 현명하고 덕 있는 군주를 위한 통치술, 경제정책 및 군사 전략을 다루며 경제윤리를 논의한다. Artha는 생계 또는 부를 의미하고, Arthashastra는 '부와 복지의 학문' 또는 '국가관리술'이라는 의미이다. Arthashastra는 정치·외교·경제·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관리에 관한 담론이라는 점에서 한자문화권의 경제론과 유사한 개념이나, 그보다 더욱 공리주의적이고 부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생활을 더욱 중시하였다

(Rangarajan, 1992, p.100; Thapar, 2002, p.52, pp.184~185). 그런 점에서 Arthashastra는 한자문화권의 경제론보다도 Political economy 개념에 더욱 잘 통한다. Arthashastra는 유럽의 중상주의가 성립하기 이전 세계의 어떤 저서보다도 경제정책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센(Amartya Sen)은 이 책이 “‘경제학’이라는 제목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갖고 쓰여진 첫번째 책이라고 거의 확신” 하였는데(센, 1999, 21쪽), 필자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 그런데 유럽 근대 문명의 영향을 받기 이전 인도에서 국가관리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저술이 Arthashastra라고 평가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Ramaswamy, 1962, p.1), 그 후 인도의 경제 사상은 유럽·중국과 달리 지속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Arthashastra는 사라졌다가 1902년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conomics의 번역어가 되었다.

7세기 이슬람교가 흥기한 이래부터 15세기경까지 이슬람권은 경제·과학기술·문화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 이븐 할둔이 1370년대 후반에 집필한 『역사서설』은 이윤, 생계, 산업, 기술 등의 개념을 구사하여 경제행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제자인 막리지(Maqrizi)는 화폐경제에 관한 높은 수준의 분석을 하였다(Essid, 1987). 당시 이슬람권은 경제적 사유에서 고대 그리스의 논리학 전통을 잘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할둔과 막리지의 시대에 경제학이 가장 발달한 지역은 이슬람권으로 보이나, 그 후 이슬람의 경제사상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농학과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의 개념을 가지지 못한 아시아에서 한자문화권과 인도는 그 번역어로 이들 학파가 성립하기 이전의 Political economy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았다. 그와는 달리 아랍권은 통치술을 의미하는 siyāsiah라는 용어를 정치로 번역하고 그 대신에 오늘

날에는 절약이란 뜻을 가진 iqtisād를 economy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Economics는 iqtisād, 또는 ilmi r iqtisād로 번역된다.

4. 일본에서의 번역

일본이 근대 학문의 도입과 번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중요한 조건은 난학(蘭學)의 전통이었다. 난학자들은 신속하게 영어를 습득하여 영일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으며, 서양에 유학하여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제학 저서를 번역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맡았다.

1862년 막부(幕府)의 양학 연구기관인 蕃書調所(開成所, 결국 東京大學의 전신)에서 편찬한 영일사전인 『英和對譯袖珍辭書』는 Political economy를 이미 ‘경제학’으로 번역하면서 Economy를 ‘가사(家事)를 하는 것, 검약(儉約)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난학자인 니시 아마네(西周)는 「百學連環」(1870년)에서 ‘近來’ 쓰다 마미치(津田真道)가 Political economy를 경제학으로 번역하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니시는 1862년의 편지에서 유럽의 철학과 ‘경제학’을 일컬어 ‘공평정대한 담론(公平正大之論)’이라고 쓴 데에서 드러나듯이, 네덜란드로 유학하기 전에 유럽의 경제학과 접촉을 하였고, 경제학이란 번역어를 알고 있었다(杉山忠平, 1986, pp.33~35, pp.80~81). 난학자 호리 다쓰노스케(堀達之助)가 『英和對譯袖珍辭書』의 편집 주임으로서 작성한 ‘Preface’에 의하면, 蕃書調所 교수인 니시 슈스케(西周助), 지무라고로(千村五郎), 다케와라 유시로(竹原勇四郎), 미쓰쿠리 데이이치로(箕作頼一郎)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쓰다가 ‘등’의 인물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그 편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알 수 없다. 그도 蕃書調所 교수인 이상 그 기관이 만드는 사전의 편찬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

으며, 설사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동료로서 친교를 맺고 있던 니시의 자문에 응해 경제학으로 번역하였을 수 있다. 이상으로 보건대 쓰다가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를 만든 시점은 蓄書調所에 취직한 1857년부터 1862년까지의 사이이다.

최초의 번역자가 이해하던 Political economy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는 니시가 경제학을 ‘공평정대한 담론’이라고 평가한 사실밖에 찾지 못하였다. 니시가 ‘공평정대한 담론’이라고 한 것은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을 보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제제민이 본디 공평정대한 담론인 것이다. 경제학으로 번역된 시점은 아직 신고전학파가 출현하기 이전이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지는 100년 가까이 지났으므로, 니시가 경제학으로 번역하는 데에 고전학과 경제학을 참조한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후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1862년의 시점에서 쓰다와 니시가 고전학과 경제학을 충실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英和對譯袖珍辭書』에서 Politics를 ‘정치학’, Political을 ‘정치에 관련된(政ニ拘リタル)’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건대, Political economy를 물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정사(政事) 정도로 생각하여 경제학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민의 약자인 경제란 원래 정치윤리와 국가관리를 종합하는 의미였다. 그래서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도 “경제학설은 대체로 정치론이고 時務論”이었다(本庄榮治郎, 1942, 2~4쪽). 이렇게 경제라는 한자어 원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은 채, Political economy의 번역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영국의 중상주의자 스튜어트(James Steuart)가 1767년의 저술에서 economy를 가정을 대상으로, Political economy를 국가를 대상으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도로 정의하였을 때, 일본 최초의 번역은 그 내용에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쓰다와 니시는 1862년 네

덜란드로 유학가기 이전에는 경제학의 대상을 물질적 욕구 충족 방도보다 넓게 잡았다. 이것은 니시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이 “經世濟民”으로부터 채용되어, 오로지 물질생활만을 논하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하게 된 데에서 드러난다.

18세기 중엽의 유럽에서 성립한 중농학과·고전학과 경제학이 만들어진 Political economy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한자문화권에서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political의 뜻과 economy의 뜻이 합성된 한자어로서 경제가 선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치를 의미하는 ‘political’이라는 형용사가 없었다면, 경제라는 번역어가 고안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Political economy의 어원이 번역의 양상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게다가 고전학과 경제학이 전제하는 정치체제인 계약국가나 국민국가의 관념이 낡설기 때문에, 인민이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주체가 되는 경제를 다루는 학문 체계를 상정하기 힘들어, 국가정책론의 시각으로 고전학과 경제학을 이해하여 경제학으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과 관련되는 사실로서 Political economy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는 Staathuishoudkunde인데, 그것은 국가관리의 학문이라는 의미이다(Groenewegen, 1985, p.746). 난학자들은 이 네덜란드어를 통해 국가관리론에 상응하는 번역어로서 경제학을 찾는 데에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성립한 원인을 근대 학문에 대한 이해 부족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쿠가와 시대 경제론의 발전 가운데 경제라는 용어가 실질적인 경제정책이란 뜻으로 사용되기에 이르고 경제학이라는 용어도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학이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서 채택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경제란 원래 정치를 의미했지만, “도쿠가와 말기에 가까워지면서 경제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여 이윽고 ‘경제’가 ‘정치’로부터 분리, 구별되어 각각 검토되는 경향

이 생겼던 것이다.”(島崎隆夫, 1959, 116쪽) 경제사회의 성립이 거론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막번제 사회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중앙집권제 사회보다 경제가 정치로부터의 자립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경제라는 개념의 진화가 좀 더 진전되었다. 게다가 초기 도입된 고전학과경제학의 도덕철학적 성격은 그것과 친화성을 가지는 한자인 경제학이 번역어로 선택되도록 도왔다. 앞으로 소개될, 1878년 출간된 『理財原論』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글래스고대학 강의 시절 ‘경제학’이 ‘修身學(moral philosophy)의 一 枝派’였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경제학’이 수신학을 근본으로 하고 “천하의 공리로 귀결한다”고 했던 것이다(史官本局 역술, 1878, 75~77쪽).

1854년 개국 이전에는 유럽 경제학의 지식을 가진 난학자들이 있었고 하지만(本庄榮治郎, 1958, 45쪽), 사회과학의 소개는 규제를 받았으므로,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1810년과 1855~1888년에 각각 나온 일란사전(日蘭辭典)인 『譯鍵』과 『和蘭字彙』에는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나오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도(鄭英淑, 2004, p.88, p.90), 개국 전에 이 번역어는 없었음이 분명하다(竹浪聰, 1983).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는 엘리스(W. Ellis)가 저술한 *Outlines of Social Economy*(1848)의 네덜란드어판을 번역한 『경제소학(經濟小學)』을 1867년에 출간하였는데, 그는 Political economy가 법학·통계학과 더불어 광의의 정치학을 구성하면서 문화·풍속도 포함한 “太平富強을 이루는 道”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난학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1862년 유럽에서 구입한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s*(William and Robert Chambers, 1852)를 번역하여 1867년에 『서양사정외편(西洋事情外篇)』을 출간하였는데, 그 「經濟의 總論」에서는 “經濟學의 취지는 人間衣食住의 需用을 충족하고 재화를 증식하여 부를 이루어 사람으로 하여금 歡樂을 향유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 고전학과

적인 경제학 정의가 소개되면서도, 그 「제언」에서는 “經國濟世의 사건을 논한 것을 ‘Political economy’로 한다”고 했다. 이 책의 구성이 인간과 가족으로부터 출발하고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여, 후쿠자와가 경제학이 ‘경국제세’를 논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소지를 주었다. 결국 처음 도입된 Political economy의 특질과 그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결합하여 경제학이라는 번역을 낳고 존속시켰다.

쓰다·간다·후쿠자와는 한자의 원래 의미를 살리면서 경제학을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 삼았으나, 한자문화권에 소속되지 않은 미국 선교사 헵번(James Curtis Hepburn)은 Economy를 경제로 번역하면서도 그 원래 뜻과 무관한 내용으로 풀이하였다. 그가 1867년 출간한 『和英語林集成』(上海: 美華書院)은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인 경제학을 받아들인 위에, Economy를 경제로 번역하면서 부(富)를 증진하기 위한 화폐나 재산의 현명한 사용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는 Economy를 Political economy라는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처음으로 경제로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이해를 증진하였다.

고전학과경제학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경제학’이 번역어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널리 대두시켰다.⁸⁾ 그래서 Political economy라는 학문의 내용에 더 잘 맞는 새로운 번역이 모색되었다. 쓰다와 니시는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영국 자유주의경제학에 정통한 피세링(Simon Vissering)으로부터 배웠는데, 이것은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서양 유학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체계적인 경제학 학습이었다. 이 니시가 경제학이란 번역어의 대안을 제

8) 경제학 지식의 증대를 낳은 주된 계기는 구미 경제학 서적의 활발한 수입과 번역이었다. 『經濟小學』이 간행된 1867년부터 1897년까지 구미 경제학의 번역서가 274종 출간되었고, 1880년대를 전후하여 경제학 서적의 번역이 특히 활발하였다(本庄榮治郎, 1966, 20쪽; 杉原四郎, 1972, 5~8쪽). 해외 유학도 경제학 지식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시한 최초의 인물로 보인다. 그는 유학 중에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1863년에 제산학(制産學)이란 번역어를 고안하였다. 니시는 1870년에 편찬한 『百學連環』에서 근대 학문을 정리하면서 중농학파·고전학파의 주요 경제학자와 고전학파경제학이 다루는 내용의 대강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그는 쓰다가 만든 번역어인 ‘경제학’이 “經世濟民으로부터 채용되어, 오로지 물질생활만을 논하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하여, 맹자(孟子)의 ‘제민지산(制民之産)’의 말로부터 제산학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하였다. 니시는 Economy를 그리스어 어원을 따져 ‘가법(家法)’으로 풀이하고 Political economy를 ‘국가의 제산에 관련되는’ 바로 보았다. 한자문화권에서는 니시가 Economy의 어원을 고찰하면서 번역어를 만들어 낸 최초의 인물로 보인다. 그는 1874년 간행된 『人世三寶說』에서 ‘이학(利學)’이라는 번역어도 선보였다. 그런데 그는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다가 결국 1877년경부터 그것에 정착하였다(杉山忠平, 1986, 33쪽, 56~57쪽; 馮天瑜, 2005, 175쪽). 이것은 경제학이란 용어의 궁극적 승리를 예고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니시는 신학문을 ‘부국안민의 학술’로 인식하였는데, 그 이상을 잘 표현하는 한자어는 경제학이었다. 니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유학의 소양이 경제학으로의 번역, 그리고 그 지지를 낳은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다.

1876년부터는 ‘이재학’이 유력한 번역어로서 대두한 것이 주목된다. 메이지 정부는 페리(Arthur Latham Perry)의 저서인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의 일부를 『경제원론』이란 이름으로 출간하였는데, 그 후 신판의 원서를 입수하자 완벽한 내용을 『이재원론(理財原論)』으로 서명을 바꾸어 1876~1878년에 걸쳐 발행하였다. 『이재원론』의 아래에 ‘一名經濟學’이 첨부되었고, 본문에서는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사용되었다. 뒤이어 나가야마 신이치(中山眞一)는 대장성(大藏省)의 명령으로 가르니에(Joseph Garnier)

의 저서를 번역하여 1878년 출간한 『이재론(理財論)』에서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를 받아들인 다음, public finance를 이재학으로 번역하였다. 이재라는 한자가 주로 재정 관리에 대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재학이 오늘날 재정학과 같은 용례로 번역될 소지는 있었다. 이처럼 이재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번역어와 함께 사용하였다.

1870년 제정된 대학 규칙에는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이란 수업 과목이, 1873년 도쿄대학 전신으로 설치된 개성학교(開成學校)에서는 법학과에 경제학이란 과목이 처음 나타났다. 도쿄대학 문학부는 개설된 1877년에 경제학 과목을 두었다. 그런데 도쿄대학은 1879년 9월에 문학부의 학과 조직을 개정하여 제1과 중에 사학(history)을 빼고 그 대신에 이재학(Political economy)을 넣었다. 이리하여 성립된 철학정치학급이재학과(哲學政治學及理財學科)에서는 4학년이 선택하여 전공할 과목 중에 하나인 이재학이 됨으로써 그 번역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이재학이라는 번역어는 영국의 자유주의경제학에 대한 일본인의 이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등장하여 확산되었다. 도쿄대학이 철학정치학급이재학과를 설치한 1879년, 그리고 정치학급이재학과를 설치한 1880년은 자유주의경제사상이 보급되는 단계였다(杉原四郎, 1972, 9쪽). 이 시기 유럽에서는 신고전학파가 성립하는 중이었고 일본에서는 고전학파경제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 개념은 그래도 경제학이라는 한자어와 부분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학파경제학의 이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미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확산되고 있었다. 고전학파경제학 저서를 번역한 『이재원론』에서는 경제학을 교역과 가격 결정의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경제’보다 ‘이재’라는 한자어와 친화성을 가진다.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서 이재학이란 용례가 성립한 후에 출간된

『이재학강의(理財學講義)』(Victor George Appert, 宇川盛三郎 역, 東京: 隨時書房, 1884) 등에서도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이재학이라는 용례를 사용하였다. 『이재론』과 『이재학강의』는 모두 프랑스 학계의 저서인 점이 흥미롭다.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등이 저술한 『철학자휘(哲學字彙)』의 1881년도 초판과 1884년도 재판에 의하면, Economics는 ‘가정(家政)·이재학(理財學)’으로, Political economy는 ‘이재학’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경제학보다 학술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Economics가 번역 대상으로 된 것이 처음 확인된다.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매클라우드가 1875년에 처음 제시한 Economics라는 용어는 1879년 마셜 부부와 제본스의 호의적 반응에 힘입어 학문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당시 일본은 유럽의 최신 학술정보를 신속히 흡수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전문과학으로서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Economics라는 용어를 성립시켰음은 앞서 언급되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동향이 이재학이라는 번역어의 대두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정학’이란 번역어가 검용된 것은 Economy 어원의 영향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

학계에서 이재학이라는 번역어의 지지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번역어로의 통일을 유도하였다. 이것은 센슈(專修)학교가 1880년 개교할 때 설치한 경제과를 1888년 이재과로 개칭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1888년 5월 공포된 특별인가학교 규칙에 의하면, “文部大臣의 認可를 거친 學則에 의해 法律學·政治學 또는 理財學을 教授하는 私立學校의 業 書를 가진 자”에게 고등시험의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다. 센슈학교는 특별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경제과를 이재과로 개칭하였다(『專修大學百年史』(上), 534~535쪽, 546쪽).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가 경제학을 전공하는 단독 학과를 1890년에 설립할 때, 후쿠자와는 1867년 『西洋事情』의 출간 때부터 자

신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경제학’을 제쳐 놓고 ‘이재학’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과학을 나타내는 번역어로 후자가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측되고 있는데(『慶應義塾百年史』 別卷(大學編), 201~202쪽),⁹⁾ 특별인가학교 규칙이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帝國大學을 비롯한 공사립의 학교에서는 오로지” 이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金井延, 1894, 1쪽).

1890년대에는 사태가 반전되어 ‘경제’가 ‘이재’를 압도하게 되었다. 그 변화는 도쿄대학에서 먼저 나타나, 정치학과가 경제학도 담당하던 1893년에 이재학 강좌가 경제학으로 개칭되었다(『東京大學百年史』, p.884). 1893년에는 특별인가학교 규칙이 폐지된 것으로 보건대, 번역어에 대한 관계의 견해가 바뀌었다. 이 무렵 학계에서는 가나이 노부루(金井延, 1894, 1~12쪽)가 한자문화권에서는 처음으로 아담 스미스 이후 영국·독일의 경제학자들의 학문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경제학이란 번역어를 다음과 같이 옹호하였다. 이재는 ‘재화에 관한 법칙’을 의미하므로, 이재학의 내용은 경제학의 한 分科인 재정학에 해당한다. 사회와 국가의 “재화상의 현상을 講究하는” 학문에 적합한 번역어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부국강병의 의미로” 확장된 자어인 경제학이다. 경제학을 ‘재화의 교역에 관한 학문’으로 보는 매클라우드(Macleod)의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의 발생과 지출에 관한 일상적인 인간사에 관한 학문으로 보는 마셜의 “정의

9) 福澤諭吉는 경제학을 문명화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知慧·儉約·正直이라는 경제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인간의 자발적인 창의력을 북돋우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중시하고 그것을 통해 ‘권력의 편중’을 타파하려고 했다(八木紀一郎, 1999, 제2장). 전자는 ‘경제’라는 번역으로 접근시킨 요인인 반면, 후자는 ‘이재’라는 번역으로 접근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福澤諭吉는 자유민권 사상을 주창하고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경제학이라는 용어 대신 이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소위 개인주의에 치우쳐 국가를 망각하는 결점을 가진다.” 가나이는 영국 학자들의 정의가 결함을 가진다고 본 반면, 독일 학자의 저술 가운데 마음에 드는 정의를 찾았다. 슈몰러(Gustav Schmoller)의 “정체(政體)의 경제적 측면의 과학(the science of the economic side of body politic)”, 그리고 와그너(Adolf Wagner)의 “국민국가의 개별적 경제 유기체(有機體)로서 국민경제를 다루는 과학(the science of the national economy, considered as the organism of individual Economics of nations organised as states)”이라는 정의가 핵심을 담았다고 보았다. 영국 고전학과경제학의 Political economy와 다르게 독일에서는 national economy의 학문이라는 Volkswirtschaftslehre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용어는 네덜란드어 Staathuishoudkunde와 마찬가지로 그 문자적 의미는 국가 또는 국민의 관리학이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가나이는 “경제학은 유기적 사회를 조직하는 인류에 관한 학문으로서 오로지 그 재화상의 현상을 강구하는 것이다”는 정의를 제시하였다.¹⁰⁾ 독일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개인주의적·사회계약적 국가관에 대항하여 국가를 유기체로 보는 이론이 18세기에 나타나 19세기에 확립되었다. 이러한 국가주의의 이념은 개인과 인권이 아니라 민족(Volk)이라는 공동체와 그것을 움직이는 윤리에 토대를 두었다(박상섭, 2008, 140~145쪽). 가나이가 경제학이란 번역어를 옹호한 것은 독일의 국가유기체설과 국가주의 경제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¹¹⁾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학문을 통해 후진적인 일본의 ‘부국강병’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10) “National Economics or political Economics is the science of the national economy, considered as the organization of individual Economics of nations organized as states.”

11) 독일 사회정책학파의 영향으로 1896년 사회정책학회가 조직되었을 때, 가나이는 그 주요 멤버였다(杉山忠平, 1986, 17~18쪽)

일본이 이재학에서 경제학으로 번역어를 다시 바꾼 데에는 영국의 자유주의경제학보다는 독일의 국가주의경제학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사회계약적 국가론과 유기체적 국가론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국가체제를 설계해 나갔던 역사적 사실이 놓여 있었다. 일본에서 인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를 분석하고 인민의 복지 향상을 주된 과제로 삼는 자유주의경제학이 보급된 것은 서양의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민주권의 논리를 펼친 자유민권운동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회계약적 국가론과 자유주의경제학의 이해가 진전되면서 국가정책론 내지 국가관리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이해가 진전되었으므로,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대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에 의해 창출된 천황제 국가는 1881년부터 인민을 천황의 신민(臣民)으로 간주하였고, 청일전쟁 이후 국가주의가 강화되었고, 그 후에는 유교적 가족주의를 유기체론에 접합한 국가관이 출현하였다.¹²⁾ 천황제 국가가 확립하는 동시에 자유민권운동이 좌절하는 가운데 유기체적 국가론과 역사학과경제학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결국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특별인가학교 규칙이 폐지된 1893년 이후에 센슈학교는 이재과의 명칭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한 1905년에 경제과로 환원하였다(『專修大學百年史』(上), 812~813쪽). 이것은 경제라는 번역어의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일로 평가하고 싶다. 1908년 도쿄대학에서는 정치학과로부터 분리된 경제학과가 성립하였다. ‘이재’라는 번역어를 가장 오래 고수한 게이오기주쿠는 1919년에 사립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이재과를 경제학과로 개칭하였다(『慶應義塾百年史』中卷(後), 1694쪽).

12) 橋川文三·松本三之介, 1971, 『近代日本政治思想史 I』, 有斐閣, 233쪽, 287~289쪽, 399쪽.

이재란 번역어가 대두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경제라는 용어는 정치·문화도 포괄하는 반면, 이재라는 용어는 경제생활에 국한되는 강점을 가졌다. 그리고 헵번이 영어로 풀이한 Economy의 의미에 가까운 한자어는 이재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전학파의 Economics가 고찰 대상으로 삼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개념에 대해 경제와 달리 이재는 친화성을 가지는 한자였다.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출현하는 시점은 신고전학파가 성립하고 있던 때였다. 『철학자휘』의 1881년도 초판에서 드러나듯이, 정치학과 무관한 전문과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Economics라는 용어의 대두도 이재학이라는 번역어의 대두를 지원하였다. Economics라는 용어를 처음 주창한 매클라우드의 저서 *Economics for Beginner*를 번역하여 1889년 간행한 『麻氏理財學』에서 아카사카 가메지로(赤坂龜次郎)는 Political economy를 경제학으로, 그리고 Economics를 이재학으로 구분하였다(馮天瑜, 2005, 168~169쪽). 그런 점에서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영향력이 이재학이라는 번역어의 출현과 무관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기본 원인은 독일 역사학과경제학이 영국 자유주의경제학에 대항하면서 등장하여 1880년대에 일본 경제학의 주류가 되었던 사실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1870년대에 본격적으로 성립한 신고전학파경제학이 일본 경제학계의 주류로 부상했다라면,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아니 고전학과경제학이 주류이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던 단계에서 이미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경제학’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역사학과경제학은 어떻게 일본 경제학계의 주류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 첫째, 일본의 엘리트는 독일의 경제적·군사적 성취에 감명을 받았다. 일본은 보불전쟁의 승리로 약진하는 독일을 발전 모델로 지향하면서 독일의 국가주의적 경향을 반영한 역사학과경제학을 도입

하였고, 1887년에는 국가학회를 발족시켰다(杉原四郎, 1972, 16~23쪽). 둘째, 자유주의경제학보다 역사학과경제학이 국민경제의 형성 등을 통해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식산흥업정책(殖産興業政策)을 통해 근대 산업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셋째, 일본의 천황제 국가관이 국가계약론보다는 국가유기체론에 더 잘 어울렸는데, 자유주의경제학보다 역사학과경제학이 이러한 국가관에 더 잘 어울렸다. 그래서 국가주의 이념에 이재학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제학이 선택될 수 있었다. 요컨대 일본이 처한 시대적 배경에 규정된 국가적 선택으로 인하여, 자유주의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심화, 확산되지 못하고 경제학은 국가재정과 식산흥업에 유리한 실무 지식의 집적으로서 도입되는 경향이 있었다(『東京大學百年史』, 880쪽). 이러한 가운데 국가학 내지 국가경제학에 친화적인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자유주의 사상에 친화적인 이재학이라는 용어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점은 가나이가 경제학이란 번역어를 옹호한 논리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국가의 이상을 ‘경제’보다 훌륭하게 표현하는 한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쿄대학은 관학적 성격이 농후하여 국가학을 지향한 반면, 자유주의경제 사상의 전통은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와 같은 민간 사학이 계승하였다. 도쿄대학은 1885년 문학부의 정치학급이재학과(政治學及理財學科)를 법학부로 옮겼고, 1886년 제국대학령에 의해 경제학의 연구·교육을 새로 설립된 법과대학 정치학과에 맡겼으며, 그러한 가운데 경제학은 관료 양성의 교육체제로 편입되었다(八木紀一郎, 1999, 10쪽). 경제학이 정치학과에 소속될 시절에 이재학과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경제학은 독일 사회정책과파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국가학의 일환으로 존속하였다(『東京大學百年史』, 882쪽). 독일의 경제학과는 관리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학의 중심지인 도쿄대학에서 먼저 1893년에 이재학이란 번역어를 경제

학으로 대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치학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편입된 학문명을 드러내는 한자로서는 이재학보다 경제학이 적절할 수가 있다. 그에 반해 민간 상공인의 양성을 기본 목표를 삼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통이 강한 게이오기주쿠가 이재학이란 번역어를 가장 오래 고수한 이유도 이해될 수 있다. Economics와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 처음에 '이재학'을 채택하던 『철학자휘』는 1912년의 제3판에 이르러 '경제학'을 겸용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번역어로서 이재학이 경제학에 압도된 후에도 학계에서 오랫동안 존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5. 중국에서의 번역

Political economy 내지 Economics의 번역에 대한 중국의 모색은 일본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며 오래 지속되었다. 룩스차이드(W. Lobscheid)가 1868년 편찬한 최초의 체계적인 영중사전(英中辭典)인 『영화사전(英華字典,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Hongkong: Daily Press Office)에서는 Economy를 '치가자(治家者), 치가지도(治家之道), 제가지도(齊家之道), 절용(節用)' 등으로, 그리고 Political economy를 '치국지도(治國之道), 국보학(國寶學), 이국보지사(理國寶之事)'로 번역하였다. Political economy의 합당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건대, 룩스차이드의 이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구미 서적의 번역을 주요 임무로 삼았던 베이징의 동문관(同文館)은 1867년에 미국인 선교사 마틴(W. A. P. Martin)을 경제학·국제법률학 교습(敎習)으로 임용하였는데, 그는 곧바로 '부국책(富國策)'이란 교과목을 설치하여 당시 Cambridge대학의 정치경제학 담당 교수인 포셋(H. Fawcett)의

Manual of Political economy(1863)를 교재로 삼았다. 마틴은 이 책을 동문관 부교습(副敎習)인 왕핑자오(汪鳳藻)에게 번역하게 하여, 1880년에 『부국책(富國策)』이 출간되었다.

영국 선교사 프라이어(John Fryer)는, 후쿠자와가 1867년에 출간한 『서양사정의편(西洋事情外篇)』의 원본인 체임버 형제(W. & R. Chambers)의 저서를 번역한 『좌치추언(佐治芻言)』을 1885년에 출간하였는데, '좌치(佐治)'란 경국제세와 같은 뜻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경국제세에 관한 다기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14장 '논재용(論財用)'부터 마지막 31장 '논사차(論餘借)'까지가 경제학에 관한 것이다. 14장에서 '이재지서(理財之書)'가 아담 스미스의 『만국재용(萬國財用)』에서 출발하였다고 보고, economy의 그리스 어원은 '치가지법(治家之法)'인데, 근래 '절검(節儉)'으로 해석된다고 하고서 이 학문이 재물의 소비·생산·분배를 다룬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총세무사(總稅務士) 하트(Robert Hart)는 영국의 Macmillan에서 간행한 서적 16종을 가져왔다. 영국 선교사 에드킨스(Joseph Edkins)가 그것들을 5년간에 걸쳐 번역하여 1886년 총세무사(總稅務司)에서 출간하였다. 그중 『富國養民策』은 제본스(W. Stanley Jevons)의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1871)를 번역한 것이다. 『부국책』과 『부국양민책』은 축약, 정리된 것이란 점에서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의편』과 유사하다. 에드킨스는 번역서들의 내용을 총괄하여 정리한 『서학약술(西學略述)』을 아울러 출간하였는데, 제8권이 '경제'이고 그 첫 번째 항목이 부국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선교사 헵번이 1867년에 상하이(上海)의 미화서원(美華書院)에서 출간한 『和英語林集成』은 경제라는 번역어를 수록하였는데, 영국 선교사 에드킨스가 그것을 모른 채 『서학약술』을 출간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에드킨스는 일본의 번역어인 경제를 받아들이고 부국, 양민 등을 경제행위의 기본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서 이재라는 번역어가 1876년 이래 점차 보급되었으므로, 프라이어는 그것을 모르고 『좌치추언』을 출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옌푸(嚴復)는 아담 스미스의 저서를 번역한 『원부(原富)』의 「譯事例言」에서 일본에서는 경제학으로 번역한 반면, 중국에서는 이재학으로 번역하였다고 적었던 것이다. 일·중 양국에서 10년 이내에 동시에 독립적으로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출현하였다면, 그것이 유력한 선택임을 보여 준다.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서양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경제학의 도입과 번역에 한층 소극적이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 경제서의 번역이 활발하여 중요한 서적은 대개 번역되었는데(杉原四郎, 1972, 6~7쪽), 중국인 거리가 19세기 말까지도 경제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처음부터 자력으로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를 고안하고 경제학 저서를 번역하였으나, 청일전쟁 이전의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경제학 저서의 번역을 주도하였고, 중국인이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를 고안한 적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문호개방 이전 양국의 학문적 역량에서 유의미한 격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상 격차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차이를 반영한다. 『부국책』의 범례는 경제학이 신학문이고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고 강병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국책』과 같은 해에 출간된 정관잉(鄭觀應)의 『이언(易言)』에서도 ‘부강지사(富強之事)’를 도모하는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어 있으며, 『서학약술』의 서문에서 리홍장(李鴻章)은 서학으로 중국의 부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경제학은 소수 선각자의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과 달리 사회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¹³⁾ 이와 관련된

13) 량치차오는 1902년의 「生計學說沿革小史」에서 1901년 옌푸가 『원부』를 출간하기 이전에 경제학 번역서가 한둘 있으나 불 만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사실이지만, 개국 전 일본은 중국보다 유럽과의 교류에 대해 한층 폐쇄적이었지만, 난학의 덕분에 유럽어의 해독자가 훨씬 많았다.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중국은 구미와 일본의 근대 문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사회의 Political economy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중국인이 그 번역어의 선택에 고심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에도 서양 문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국인은 중국의 우선 과제가 구미 국가처럼 부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고, 중국인들이 경제학을 학습하는 주요한 동기는 부강의 도모였다(方維規, 2008, 195~197쪽). 그래서 ‘富國學’이라는 번역어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서, 량치차오(梁啓超)는 “富國學之書日本名爲經濟書”라 했다(마시니, 2005, 249쪽). 청나라 학부(學部)는 동문관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여 부국학을 번역어로 정하였다(馮天瑜, 2005, 177쪽). 그런데 부국학이라는 번역어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일본인과 조선인도 중국인처럼 경제학의 주요한 효용을 부강의 도모로 보았지만, 부국학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부국은 학문의 중요한 효용이지만, 중상주의학파의 경제학과는 달리 고전학과 이후의 경제학은 부국학이라는 좁은 의미의 명칭으로 포괄하기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사료된다. 그런데 이 신학문을 통해 구미 국가처럼 부국강병을 도모해야겠다는 동기는 결국 일본에서처럼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선택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민간에서는 이재학이란 번역어가 우세해져서, 량치차오는 『時務報』 14호(1896)에서 자생학이 곧 이재학인데 일본에서는 경제학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재학 대신에 자생학을 선호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1901년에 출판된 『원부』의 「譯事例言」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경제로 번역한 반면, 중국에서는 이재로 번역하였다고 했다. 『원부』의 서(序)를 쓴 우루룬(吳汝綸)도 중국에서는 이익 추구를 꺼리고 상업을 억압

하여 ‘이재지학’이 없어서 경제발전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았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재’가 가장 유력한 번역어로 대두하였던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부국강병을 달성한 일본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도 나타났다. 량치차오는 일본에 망명한 이후 경제라는 번역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서, 1899년에 쓴 「論近世國民競爭之大勢及中國之前途」에서 열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라 인민의 일, 그리고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시점에서 량치차오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접근한 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자생이라는 번역어를 권장하였는데, 1900년에는 다시 경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다가 1902년에는 생계학(生計學)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였다(馮天瑜, 2005, 177~178쪽). 일본의 번역어 ‘경제’에 대한 관심은 나타났으나, 그 원래 뜻이 신식 학문의 내용과 크게 달라 량치차오 등 중국인은 그 도입에 주저하고 다른 번역어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옌푸가 처음으로 Political economy가 아니라 Economics의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저서를 번역한 『원부』의 「譯事例言」에서 Economics를 ‘계학(計學)’으로 번역하고,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conomics는 그리스 어원으로는 가정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나아가 요량(量)·기획경영·절약·출납(出納)의 일을, 더 확충되어서는 국가의 식량 생산과 재화 지출의 원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 포괄하는 뜻이 다기(多岐)한데, 일본의 번역어인 ‘경제’는 지나치게 넓은 반면, 중국의 번역어인 ‘이재’는 지나치게 좁다. 회계, 국제, 가계 등에 쓰이는 ‘계(計)’는 ‘다스린다’ 내지 ‘관리한다’라는 Economics의 그리스 어원에 부합한다.

옌푸는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아담 스미스와 밀(J. S. Mill)과 같은 고전학

파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마셜(A. Marshall)과 제본스와 같은 신고전학파경제학자도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학(計學)으로 번역한 논거로 보면, 그가 이해하는 경제학은 한계혁명(限界革命) 이전 단계 고전학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도 당시 중국에서는 누구보다 경제학을 잘 이해한 그가 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이재란 번역어를, 경제란 한자어에 접근하면서 양자를 절충하는 계학으로 바꾸고자 하였을까. 옌푸는 “계학이 절실하게는 중국의 빈부에 관계되고 멀리는 黃種의 盛衰에 관계되므로, 내가 Adam Smith의 글을 볼 때마다 시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Economics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지식의 제공이라는 존재 의의를 가졌기에, 재화의 효율적 관리라는 협소한 의미의 ‘이재학’이 아니라 경국제세의 의미에 접근하는 ‘계학’으로 번역되었다. 고전학파경제학의 극복에 공헌한 제본스의 저서가 이미 축약된 상태나마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옌푸가 그보다 백 년 전에 고전학파를 창시한 스미스의 저서를 공을 들여 완역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량치차오는 국가 경쟁력을 잘 함축하는 번역어로서 ‘경제’를 채용한 적이 있었다. 중국이 이재학이란 번역어를 포기하고 결국 ‘경제학’을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내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다. 후진적인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따라잡기(catch-up)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접근을 낳은 점에서는 일본과 상통하는 바 있고,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한국 과도 상통하였다.

옌푸의 번역어 계학(計學)은 지식인층의 지지를 모았으나(馮天瑜, 2005, 179~180쪽; 唐慶增, 1975, 19쪽), 이재학 등 다양한 번역어를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금세(今世) 최성의 학문이 경제학이라 평가하던 량치차오는 옌푸의 번역 이전에 ‘평준학(平準學)’이라는 번역어를 고안하였으나, 곧 타당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史記』에 나오는 ‘평준’이란 정부가 물자의 매매와

운송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의미한다. 옌푸가 계학으로 번역한 것을 보고, 량치차오는 「生計學學說沿革小史」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바 있는 ‘생계학’이란 번역어를 지지하면서 후세의 평가를 기다렸다.

유럽의 국가관은 옌푸와 량치차오에 의해 19세기 말 중국에 전해졌다. 이들은 자유주의적·사회계약적 국가관을 도입하였으면서도 후기로 갈수록 유기체적 국가관으로 경도되어 갔다(胡偉希, 2003). 반(半)식민지화 위기의 극복을 위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문제의식이 국가주의로 기울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량치차오는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를 때때로 받아들이다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였고, 옌푸는 경제학과 이재학을 절충하는 계학이라는 번역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절충주의적 국가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의 중국에는 음역(音譯)과 의역(意譯)을 합쳐 다수의 번역어가 병존하여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다. 1900년대 중국에서 일본의 경제학자가 강의를 하고 일본의 경제학 서적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보급되었다.

그래도 이 의역이 새로운 학문의 원래 내용과 잘 맞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신해혁명 전후에도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혁명파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실천적 요청은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신해혁명 직후 쑨원(孫文)은 다음과 같이 경제라는 번역을 옹호하였다(馮天瑜, 2005, 180~181쪽).

경제학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管子는 經濟家여서 소금제조업과 어업의 이익을 진흥하고 政治를 잘하여 富強을 이루었으나, 특히 당시에 經濟學이란 名詞가 없고 條理도 없어서 과학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후 經濟의 원리는 계통의 학설을 이루어 혹 富國學, 혹 理財學으로 불리나, 모두 그 뜻을 포

괄하기에는 부족하고, 經濟 두 글자가 그것에 조금 가깝다.(『社會主義之派別與批評』, 1912)

여기서 쑨원이 ‘정치를 잘하여 부강을 이룬다’는 뜻을 포괄해야 하는 점을 중시한 것에 주목하고 싶다. 그도 옌푸와 마찬가지로 한계혁명 이전 단계의 Political economy의 이해 수준에 머문 데다가 중국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는 데에 봉사하는 것으로 학문의 위상을 설정하였기에, 경제학이라는 번역을 옹호하였다. 이 옹호를 중국의 학계와 사회가 수용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경제학은 1920년대 이후에야 통일된 술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6. 한국에서의 번역

서양 문명에 가장 폐쇄적이던 한국은 중국·일본보다 늦게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국은 1880년 제2차 수신사(修信使)의 보고 이후 근대 문화를 도입하는 주된 창구를 일본으로 삼았으므로, 일본의 번역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을 통해 근대 문명을 학습하려는 최초의 본격적 시도로 1881년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의 방대한 시찰보고서는 근대 문물에 대한 일본의 번역어를 다수 수록하였다. 여기서 대장성(大藏省) 시찰의 임무를 맡은 어윤중(魚允中)이 도쿄의 상법강습소(商法講習所)의 교과목을 수록하면서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그런데 강진형(姜晉馨)이 『일동록(日東錄)』에서 수록한 학과목은 “어학·법률학·이학(理學)·화학·중학(重學)·광학(光學)·기학(氣學)·산학(算學)·광학(鑛學)·함학(函學)·천문학·지리학·기기학(機器學)·동물학·식물학·사학·한학(漢學)·영학(英學)·상고학(商賈學) 등 명색(等名色)”

을 망라하였으나, ‘경제학은 나와 있지 않다.’¹⁴⁾

이 시찰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서는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통상을 통한 부국책 등 경제 논의가 활발함에 따라, 경제라는 번역어가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1883년 10월 1일부터 발간된 『한성순보』에서는 번역어로서 경제가 다수 나온다. 9호(83.12.21)에서는 미국금은산액(美國金銀產額)을 소개하고 ‘영경경제잡지(英京經濟雜誌)’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16호(84.3.1)에서는 『경제학』 등 영국 서적을 출판한 일본의 보도를 소개하였다. 18호(84.3.21)에서는 ‘경제’에 뜻을 둔다면 제당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논설이 나와, 번역어 ‘경제’가 비로소 자리를 잡았음이 드러난다. 번역어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용후생(利用厚生), 부국(富國), 재용(財用)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29호(84.6.11)에는 구미 국가들의 통화량을 다룬 영국 책이 ‘국가의 경제’에 유익하다고 지적하였다. 『한성순보』의 발간 단계에 번역어 ‘경제’가 정착하였던 것이다.

유길준은 연금된 1886~1892년간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하였는데, 여기에 나온 경제, 경제학 및 경제인의 용어 14건은 거의가 번역어로 보아도 된다. 예컨대 제7편에서 과세문제로 “국가의 경제를 損傷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문장에서 ‘경제’란 오늘날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13편에서 서양 학문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을 포함하지 않고, 정치학을 “政事하는 經濟”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경제’란 한자어의 원래 의미이다. 유길준은 집필 당시 조선인 중에서는 근대 문명을 가장 잘 이해하였지만, 간단한 『경제소학』(1867)이나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의편』(1867)에 제시된 경제라는 개념의 이해 수준에 머물렀다.

14) 許東賢 편, 2000, 『朝士視察團關係資料集』 13권, 國學資料院, 59~61쪽; 같은 책, 14권, 234~235쪽.

조선은 경제학의 도입에서 중국보다 늦었지만, ‘경제학’이란 번역어의 도입에서는 중국보다 빨랐다. 중국에 앞서 일본을 학습하고자 했고, 게다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자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중국보다 한자의 원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제민이라는 뜻의 경제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익숙하여,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의 도입은 다른 번역어에 비해 용이하지 않았고, 그 번역어가 한자어의 뜻과 완전히 결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한성순보』 19호(1884.4.1)에는 ‘美國博士寶節德’의 『국재론(國財論)』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다. 1877년 일본에서 寶節德氏 原撰, 永田健助 譯述의 『寶氏經濟學』이 출간되었는데, 寶節德은 영국 케임 리지대학의 포셋(H. Fawcett)였다. 그 원본은 중국에서 法思德의 저서인 『富國策』으로 1880년에 번역, 출간된 *Manual of Political economy*(1863)와 같은 책자로 보인다. 여기서 일본의 번역어인 이재학, 그리고 중국의 번역어인 부국책을 절충하는 독자적인 번역어인 ‘국재론’이 고안된 것이 흥미롭다. 1886년에 편찬된 해본의 사전 3판에도 이 번역어가 나오지 않고, 중국에서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¹⁵⁾ 『한성순보』에서는 그 밖에 ‘국재’라는 용어를 수록한 기사가 세 번 검색되는데, 국가재정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Political economy*의 독자적 번역이 시도되었다 해도 미약한 흐름이었다.

『독립신문』에서는 경제학이 9번 검색되는데, 다음은 경제학이 생활용어로 정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원칙이

15) 福澤諭吉이 저술한 『民間經濟錄』 二篇(福澤氏版, 1880)에 ‘國財’라는 용어가 나오나, 그것은 국가의 재산을 의미했다. 중국에서 1880년 발간된 『富國策』의 第1卷 第1章의 총론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Wealth of Nations*를 ‘國財用論’로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政府)에서 데일 급히 홀 일이 권공장(勸工場)이라 권공장이라 하는거슨 정부에서 크게 학교를 세우고 인민을 모집하야 각식 공업을 7루치는 처소라 정부에서 아모 것도 모로는 빅성들을 불상하다고 의수 업시 돈 주는 거슨 국법에 도 틀닐뿐더러 경제학(經濟學)에 올치 안흔 거시오.(1896년 9월 15일 화요일 제1권 제70호, 논설 「권공장 설립」)

경제학의 논저(李基俊, 1985·1987)로 보건대, 경제학은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하였다. 그전부터 경제와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의 사용이 서서히 확산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재학이라는 번역어의 사용은 늦고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1900~1909년간 법령에 나타난 교과목을 보면, 1908년의 법관양성소학칙에서만 그것이 사용되었다가 그해 그 개정학칙에서는 경제학으로 복귀하였다(安秉直, 1982, 413~414쪽). 한국에서는 유학 중에도 이재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가장 강한 주자성리학의 영향력이 일본·중국보다 강하였으므로, 이재라는 번역어가 뿌리를 내리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보성전문이 개교한 1905년에 이재학과라는 학과명을 사용한 것은 당시 교수·강사진들이 다닌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와 센슈(專修)학교의 학과명을 따랐기 때문이다. 보성전문은 1907년에 수업 연한을 2년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면서 이재학전문과를 경제학전문과로 개칭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성전문의 개교 직후에 센슈학교의 이재과가 경제과로 개칭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 당시 '경제'라는 번역어가 '이재'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굳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센슈학교보다 학문적 위상이 높은 게이오기주쿠가

이재과라는 명칭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성전문이 전수학교를 무조건 뒤따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보성전문의 운영 주체들이 이재보다 경제라는 번역어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이용익(李容翊)의 학교 설립 이념과 결부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이용익은 근대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료를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보성전문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종은 교명을 지어주고 자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았다. 고종과 이용익이 보성전문을 국립으로 하지 못한 것은 보호국으로 전락되던 시대 상황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성전문의 학교 설립 이념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1880년대 초부터 개화사상의 보급과 심화에 수반하여 관·민은 부국강병 내지 근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근대 교육을 추구하였으며, 1904년의 러일전쟁 이후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은 교육과 산업의 발전을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삼았다.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환경 가운데 근대 학문인 경제학의 교육·학습 동기는 경제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만 머물 수 없고 나아가 근대화와 국권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보성전문이 신속히 경제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식민지화 이전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던 보성전문 운영자들이 경제학과에서 민간 상공인보다는 국가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할 정치가와 관료, 곧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가 발전 내지 국권회복의 도모라는 학교 설립 이념 내지 시대적 문제의식이 결국 경제라는 번역어를 요청하였다고 보고 싶다.

이것은 경제라는 개념이 이해, 정의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이재학과에서 강의한 유치형(俞致衡)이 강술하고 교장인 신해영(申海永)이 교열하여 1907년경 발간한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을 “經國濟民의 원리를 物件上으

로부터 설명하는 학문”으로 집약하였다. 보성전문학교 교우회가 1907년 발행한 『법정학계(法政學界)』 1호에 실린 취지문에 의하면, “소위 經濟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요 세상을 救濟하는 활동이니, 이 原理·原則을 研鑽하여 그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보충하고 미래를 살피 국가의 성쇠를 판결하는 학문”이었다. 경제학은 물질적 측면에서 경국제민의 원리를 설명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1907경에는 미숙하나 마 세계경제학계의 이론이 대부분 소개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안병직, 1982, 434~438쪽), 여전히 한자어의 의미에 입각하여 경제학이 정의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 신학문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개념의 이해·정의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구미(歐美)인이 경제학 개념의 번역에 별로 기여한 바는 없다. 그 번역어가 일본·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미인은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의 편찬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은 경제학 개념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가 1890년에 편찬한 『한영사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橫濱: 製紙分社)은 economy는 ‘절용(節用)하는 것, 아끼는 것, 규모’, politic은 ‘꽤 있소’라는 의미로 풀이하는 데에 그쳤다. Economy의 한 뜻으로서 절약이란 의미를 한국어에서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소수의 개화 인사는 경제학과 정치학이라는 신학문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학술용어가 일반인의 생활용어로서 정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게일(James Scarth Gale)이 1911년에 2판으로 간행한 『영한사전A Korean-English Dictionary』(京城: 耶蘇敎書會)에는 ‘경제’는 finance와 economy로, ‘경제학’은 economic science와 Political economy로, ‘이재학(理財學)’은 Political economy로 나와 있었다. 그때까지도 이재학은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서 경제학과 경합하고 있었다.

Economics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대신 economic science가 나왔다.

7. 맺음말

흥미롭게도 한자문화권과 인도에서 채택된 Political economy의 번역의 어원은 근대 경제학이 성립하기 이전 Political economy의 의미와 상통한다. 아랍권에서 채택된 번역어의 어원은 economy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경제학이 가정·국가관리 사상으로부터 발전해 왔음을 보여 준다. 그리스에서 Political economy,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서 그 번역어는 모두 서력 기원 전후에 출현하였으나, 오늘날 개념으로의 전환은 유럽 근대 경제의 성립기에 이루어졌다. 이들 용어는 고대사상의 발전기에 출현하여 근대 학문의 성립기에 오늘의 개념으로 다시 탄생하였던 것이다. 개념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호혜와 공재정(公財政)이 배분체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서는 경제학은 미분화된 상태로 윤리적 성격이 강한 관리 사상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자동조절력을 갖춘 시장사회의 성립은 경제이론의 발전에 의한 근대 경제학의 성립을 낳았던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Political economy의 번역어로 거론된 용어가 많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정치경제의 발전 가운데 경제담론이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의문자(表意文字)라는 한자의 이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채택된 것은 그 출발점에서는 새로운 학문의 진화과정에 영향을 받았고, 그 귀결점에서는 이 학문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번역의 초기에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 번역의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 해도 만약 처음부터 political이 들어가지 않은 신고전학파의 Economics를 번역의 대상으로 삼았다더라면, 경제학이란 번역어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출현할 때, 유럽에서는 Economics라는 용어가 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론이던 경제의 담론이 근세에 물질적 욕구 충족의 논의를 한층 중시하게 된 것이 번역어로의 성립을 도왔다. 초기 도입된 고전학파경제학의 도덕철학적 성격은 그것과 친화성을 가지는 한자인 경제학이 번역어로 선택되도록 작용하였다. 게다가 고전학파경제학이 전제하는 정치체제인 계약국가나 국민국가의 관념이 낫설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으로 삼는 학문체계를 상정하지 못하여, 국가정책론의 시각으로 고전학파경제학을 이해하여 경제학으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전학파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그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런데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후에는 유럽의 경제학이 변천하고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의 학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을 알고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번역의 귀결이 영향을 받았다. 신고전학파의 Economics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진 후에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만약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라는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학계의 주류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더라면, 이재학이라는 번역어가 선택될 가능성은 높았다. 그런데도 경제학이라는 번역어의 궁극적 승리를 낳은 결정적인 요인은, 동아시아의 세 나라 모두가 새로운 학문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여 후진성의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사회적 요구였다. 일본에서는 독일 역사학파의 국가주의 경제학이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고, 최초의 번역어인 경제학이 독일 역사학파를 통

해 본 새로운 학문의 이상과 효용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동일한 사회적 요구를 가졌던 중국과 한국도 결국 이러한 일본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였다.

한자문화권의 번역어 모색 이전의 유럽에서는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 확립하여 가면서 Political economy라는 호칭의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번역어인 '부국학'의 의미에 통하는 Plutology, 이재학으로 번역될 수 있는 Chrematistics, 그리고 교환의 학문이라는 의미의 Catallactics 등의 새로운 이름도 등장하였다. 그중 Catallactics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서 거론되었다.¹⁶⁾ 이러한 도전을 헤치고 Economics가 선택된 데에는 그 용어에 익숙하였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한자문화권에서는 '경제학'이 최초의 번역어로서 익숙해졌던 것이 결국 선택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Oikonomikos, 그리고 한자문화권에서는 경제학으로 불렸던 담론의 체계가 본디 있어서, 새로운 학문의 내용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Economics의 어원은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학문의 위대한 전통에 결부되어 있었고, 경제라는 한자는 유학의 이상을 집약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도 학문의 명칭으로 선정되는 것을 도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이라는 한자는 그것이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학문과 언어상의 의미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면적인 의미나 의의로 보면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래도 양자 간 간격이 좁지는 않은 가운데,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는 그 학문의 내용과 그 한자어의 절충의 산물로 성립하였다. 경제학이라는 번역어는 나름의 독자적 생명력을 가져서, 한자문화권에서는 그 한자 의미가 학문의 이해 방식에

16) 그런데 Catallactics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번역어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한자문화권에서 교환의 담론이 미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경제 분석이 발전하기 어려웠다.

영향을 미쳐 왔고, 한자문화권의 경제학적 사유체계의 특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본에서 처음 경제학이 번역어로 대두한 것은 유학 사상의 소양으로 신학문을 바라보는 면이 있었다면, 이재학으로 전환한 것은 유학 사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결국 경제학이라는 번역어가 선택된 것은 전통과의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전통을 부분적으로 고려한 일종의 절충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구미의 민주주의 제도를 전면 도입하지는 못하고 천황제 정치체제라는 절충물을 만든 사정과 상통한다.

‘경제학’이 번역어로서 성립하여 정착하자 한자문화권에서는 이 번역어라는 프리즘을 거쳐 새로운 학문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점차 한자와 유학사상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학문의 개념으로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학이란 국가를 다스리고 인민을 구제하는 데에 유용한 학문이란 한자 의미의 관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Political economy의 번역 과정은 유럽문화권과 한자문화권 사이에 개념이 충돌하다가 타협하는 과정이자 한자문화권에서 개념이 재정립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신고전학과경제학은 고전학과경제학보다 분석기법을 발전시켰으나, 20세기 전반까지는 고전학파가 관심을 가진 역사·제도·정치·윤리 등을 분석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주류 경제학은 역사 분석의 성장사학(成長史學)·신경제사, 제도 분석의 신제도학과(新制度學派), 정치영역도 고려하는 정치경제학 등의 성립을 통해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나아가 오늘날의 경제학은 국방·교육·가정문제 등 합리적 선택에 관련되는 일상적인 인간사를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20세기 전반 이전 신고전학파의 좁은 연구 영역에 친화성을 가지는 ‘이재학’보다는 고전학파의 Political economy의 도입을 통해 도출된 ‘경제학’이라는 번

역이 더욱 적절한지도 모른다. 일본인과 중국인 모두가 Political economy 또는 Economics의 번역어로서 경제의 뜻이 지나치게 넓고, 이재의 뜻은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한자문화권의 지식인들이 정태적 효율화와 최적화의 논리를 제공하던 신고전학과보다 폭넓은 문화사적 시야를 제공한 고전학과와 동태적인 역사발전의 시야를 제공한 역사학과에 더욱 끌린 이유를 단지 경제지식이 부족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근대 국가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필요한 지식을 경제학에서 구하고자 했던 열망 때문이었다. 고전학과를 대체한 신고전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였으나, 20세기 후반의 경제학이 그것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필자가 20세기 후반 경제학의 발전을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Economics에 가장 가까운 한자어를 선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생각이 없이 이재학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경제학의 영역 확장을 목도한 지금에는 ‘경제학’보다 더 나은 한자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원이 상통(相通)한 점에서 선정되었지만, ‘오식(誤植)’이라는 평가(馮天瑜, 2004, 573쪽)도 나올 정도로 영어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결과로 보면 좋았다. 이것은 헤겔(G. W. F. Hegel)의 이른바 ‘이성의 간지(奸智)’가 작용한 까닭인가?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박상섭, 2008, 「한국 국가 개념의 전통 연구」, 『개념과 소통』 창간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21~174쪽.
- 박주원, 2001, 「마르크스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생산' 패러다임과 '정치' 이념의 종합을 위하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安秉直, 1982, 「舊韓末經濟學教育과 經濟學教科書에 관한 研究」, 『韓國教育史研究의 새 方向』, 集文堂, 400~439쪽.
-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一志社.
- 李基俊, 1985,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研究』, 一潮閣.
- _____, 1987, 「韓末 西歐經濟學導入과 日帝下 經濟學」, 『經濟論集』 26-4, 433~465쪽.
- 李憲昶, 1999, 「磻溪 柳馨遠의 經濟思想에 관한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10, 61~96쪽.
- _____, 2005, 「普成專門學校時節의 經濟學術活動」, 『韓國 經濟學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29~102쪽.
- _____, 2005·2006, 「朴齊家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 『韓國實學研究』 10, 131~156쪽; 『韓國實學研究』 11, 183~215쪽.
- _____, 2007,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 『잠곡(潛谷) 김육(金堉) 연구』, 태학사, 133~264쪽.
- 胡偉希, 2003, 「嚴復과 梁啓超의 國家思想의 變化」, 『東아시아 近代史에서의 西洋思想 受容과 國家建設에 관한 思想史的 比較 研究』, 韓國·東洋政治思想史學會 제2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 번역서

- M. I. 핀리(1993), 『서양고대경제』, 지동식 옮김, 민음사.
- 로이드 E. 이스트만(1999·2003),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이승휘 옮김, 돌베개.
- 아담 스미스(2003), 『국부론(상·하)』 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아리스토텔레스(1982·1986), 『政治學·詩學』, 羅鍾一·千丙熙 역, 三省出版社.
- 아리스토텔레스(2006), 『니코마스 윤리학』,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이제이북스.

- 아미티아 센(1999), 『윤리학과 경제학』, 박순성·강신욱 옮김, 한울.
- 이븐 할둔(2003), 『역사서설』, 김호동 옮김, 까치.
- 칼 폴라니(1983), 『人間의 經濟 I』, 朴賢洙 옮김, 풀빛.
- 크세노폰(2005), 『향연·경영론』, 오유석 옮김, 작은 이야기.
- 페데리코 마시니(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옮김, 소명출판.
- 한나 아렌트(1996·2006),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우 옮김, 한길사.

3. 해외자료

1) 중문

- 亞丹斯密, 1901, 『原富』, 嚴復 역, 臺灣商務印書館(1977년 復刊).
- 梁啓超, 1909, 「論近世國民競爭之大勢及中國之前途」, 『飲水室文集』, 廣知書局.
- _____, 1967, 「生計學說沿革小史」, 『飲水室文集(精校本)』, 台北: 新興書局.
- 胡寄窓, 1962·1983, 『中國經濟思想史(上)』, 上海: 人民出版社.
- _____, 1981·1983, 『中國經濟思想史(下)』, 上海: 人民出版社.
- 唐慶增, 1975, 『中國上古經濟思想史』, 台北: 古亭書屋.
- 馮天瑜, 2004, 『新語探源—中西日文化互洞?近代漢字術語生成』, 中華書局.

2) 일문

- 金井延, 1894, 『經濟學』, 東京: 水間尙志.
- 大久保利謙 편, 1981, 『西周全集』(4卷), 宗高書房.
- 神田孝平, 1867, 『經濟小學』, 紀伊國屋.
- 木崎喜代治, 1978, 『フランス政治經濟學の生成』, 未來社.
- 島崎隆夫, 1959, 「日本經濟思想の研究史」, 『日本における經濟學の百年』上, 日本評論社, 109~184쪽.
- 重田園江, 2003, 『經濟』, 『哲學·思想翻譯語事典』, 論創社, 85~86쪽.
- 杉原四郎, 1972, 『西歐經濟學と近代日本』, 未來社.
- 杉原四郎·逆井孝仁·藤原昭夫·藤井隆至, 1990, 『日本の經濟思想四百年』, 日本

經濟評論社.

杉山忠平, 1986・1991, 『明治啓蒙期の經濟思想』, 法政大學出版局.

郷正明・飛田良文, 1986, 『明治のことは辞典』, 東京堂.

竹浪聰, 1983, 「けいざい(經濟)」, 『講座日本語の語彙』 第10卷, 佐藤喜代治 編, 明治書院, 1~4쪽.

テッサ・モーリス-鈴木, 1991, 『日本の經濟思想』, 藤井隆至 訳, 岩波書店.

ジョセフ・ガルニエ(Joseph Garnier)(1878), 『理財論』, 中山眞一 訳, 大藏省.

鄭英淑, 2004, 「津田眞道の譯語研究」, 國際基督教大學 比較文化研究科 博士論文.

福澤諭吉, 1867, 『西洋事情外篇』, 尙古堂.

本庄榮治郎, 1942, 『日本經濟思想史研究』, 日本評論社.

_____, 1958, 『日本經濟思想史』, 有斐閣.

_____, 1966, 『日本經濟思想史研究(上)』, 日本評論社.

八木紀一郎, 1999, 『近代日本の社會經濟學』, 筑摩書房.

速水融, 1973, 『日本における經濟社會の展開』, 慶應通信.

森莊三郎, 1943, 「經濟學部總説」,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法學部・經濟學部』, 東京帝國大學, 467~519쪽.

馮天瑜, 2005, 「中國語, 日本語, 西洋語間の相互傳播と翻譯のプロセスにおける「經濟」という概念の變遷」, 『日本研究』 31,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紀要, 159~190쪽.

方維規, 2008, 「『經濟』譯語に関する再考」, 『東アジアにおける知的システムの近代的再編をめぐって』, 『際日本文化』 究センタ, 193~200쪽.

慶應義塾, 1958(上)・1960(中)・1964(下), 『慶應義塾百年史』.

_____, 1962, 「經濟學部付商學部」, 『慶應義塾百年史』 別卷(大學編).

史官本局 訳, 1878, 『經濟原論』.

專修大學, 1981, 『專修大學百年史』(上).

東京大學百年史編輯委員會, 1987, 『東京大學百年史』, 제3권 經濟學部, 東京大學 出版會.

早稻田大學大學史編集所, 1988, 『早稻田大學百年史』 1권; 1991, 2권; 1997, 總索引 年表.

3) 구미문

Arendt, Hannah(1958), *Human Condi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istotle, 1962(1992), *The Politics*, Penguin Books.

Arndt, H. W.(1984), “Political economy,” *Economic Record*, vol.60, Issue 170, pp.266~273.

Aristotle(1969), *Metaphysics, Oeconomica and Megna Morall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Essid, M. Yassine(1987), “Islamic Economic Thought,” *Pre-classical Economic Thought*, S. Todd Lowry (ed.),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77~102.

Finley, M. I.(1987), “Chrematistic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1, pp.421~423.

_____(1975), *The Ancient Economy*, London: Chatto & Windus.

Flux(1987), “Plutology,”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3, p.897.

Khaldun, Ibn(1958), *The Muqaddimah: An Introduction to History*, F. Rosenthal (t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oenewegen, Peter(1985), “Professor Arndt on Political economy: A Comment,” *Economic Record*, vol.61, Issue 175, pp.744~751.

Groenewegen, Peter(1987), “‘political economy’ and ‘economic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3, pp.904~907.

King, James E.(1948), “The Origin of the Term ‘Political economy’,”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pp.230~231.

MacLeod, H. D.(1875), “What is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Review* 25, pp.871~893.

Marshall, Alfred (8th ed.)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Masini, Federico(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umber 6, Berkeley.

Mason, Edward S. & Thomas S. Lamont(1982), “The Harvard Department of Economics from the Beginning to World War II,”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97 No.3, pp.383~433.

North, D. C.(1977), "Markets and other allocation systems in history: the challenge of Karl Polanyi,"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6.

Polanyi, Karl(1968 · 1971), *Primitive, Archaic, and Modern Economies: Essays of Karl Polanyi*, Boston: Beacon Press

Ramaswamy, T. N.(1962), *Essentials of Indian Statecraft: Kautilya's Arthashastra for Contemporary Readers*,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Rangarajan, N. L.(1992), *Kautilya · The Arthashastra*, Penguin Books.

Recktenwald, H. C.(1987), "cameralism,"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3, pp.313~314.

Robbins, Lionel(1932 · 1935),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London: Macmillan.

Roncaglia, Alessandro(2006), *The Wealth of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thbard, Murray N.(1987), "Catalactic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1, pp.377~378.

Sen, Amartya(1987), *On Ethics and Economics*, Blackwell Publishers.

Smith, Adam(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Spiegel, Henry W. (3rd ed.) (1991),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Schumpeter, J. A.(1954),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George Allen & Unwin.

Sidgwick, Henry(1987), "'Economic Science' and 'Economic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2, pp.58~59.

Steuart, James(1767 · 1998),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rew S. Skinner with Noburo Kobayashi and Hiroshi Mizuta (ed.), London: Pickering & Chatto.

Sweezy, Paul M.(1942 · 1946),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Principle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Thapar, Romila(2002), *Early India: From the Origin to AD 13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ribe, K.(1987), "List, Friedrich,"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3, pp.216~218.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1933 · 1989), Prepared by J. A. Simpson and E. S. C. Weiner, Oxford: Clarendon Press.

Xenophon(1968), *IV: Memorabilia, Oeconomicus, Symposium and Apology*, Loeb Classical Library.

Abstract

Changes in the Concepts of Political Economy and Economics and their Translations

Hunchang Lee(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 Key Word : Economics, Political economy, Oikonomikos, Translation

Nowadays, the terms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are translated in Korea, Japan, and China as *Kyeongjaebak*(經濟學 which originally meant statecraft for the people's welfare) and *Jeongchikyeongjaebak*(政治經濟學), respectively. However, the translation of *Kyeongjaebak*, in fact, originated in the very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The etymology of the translated terms for political economy in India and China actually accords with the original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economics, while that in the Arabic region is congenial to the definition of economy. These terms were born in the heyday of ancient thoughts, and have been reborn in today's definitions with the establishment of modern economics.

Originating in the Greek *oikonomia*, literally "management of household," the adjective *political* was added to describe the management of polis or state. With the advent of Classical economics, the term *political economy* became a social science to study of the law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of the nature of

wealth. Later, Neoclassical economists, who sought to establish the study of the economy upon mathematical methodology, and who aimed to analyze behaviors of households and firms regardless of politics, replaced the term 'political economy' with 'economics' without the adjective *political*.

The etymology of *Kyeongjaebak*, which first appeared as a translated term in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published in 1862, shares some aspects with the Classical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but is irrelevant to the Neoclassical definition of economics. This term ultimately triumphed over other translations, such as *Ejaebak*(理財學 which originally meant the study of governing wealth), which captured the Classical and Neoclassical concepts more appropriately. In China, where there were more competing translated terms than there were in Japan, the term *Kyeongjaebak* was generally considered as an inappropriate translation, but was, nonetheless, adopted in the end. As for Korea, strongly influenced by modern sciences from Japan since the 1880s, there was little resistance against the adoption of the Japanese translation.

The etymology of political economy, as a subject of translation, along with the innate nature of the early Classical economics' moral philosophy, helped the term *Kyeongjaebak* to prevail. As people better understood economics, both the Japanese and the Chinese thought that the meaning of *Kyeongjaebak* was too broad to capture the concept of political economy or economics, while the alternative term, *Ejaebak*, by contrast, was too confining. At that time, the three, backward East-Asian countries viewed the utility of economic science as serv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this goal was best represented by the Chinese characters *Kyeongjaebak*, which was the key determinant for its final victory. In sum, the selection of *Kyeongjaebak* as the translated term for economic science was affected by the evolution of the modern science at the beginning, while, at the finishing point, it reflected the demands of the times.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mainstream economics has extended its fields of study to embrace history, institutions, politics, culture, etc. In that sense, the broad term *Kyeongjaebak* seems more appropriate for the translation of economics rather than *Ejaebak*, which is better suited as a term for the confined research-area of Neoclassical economics before the middle twentieth century.